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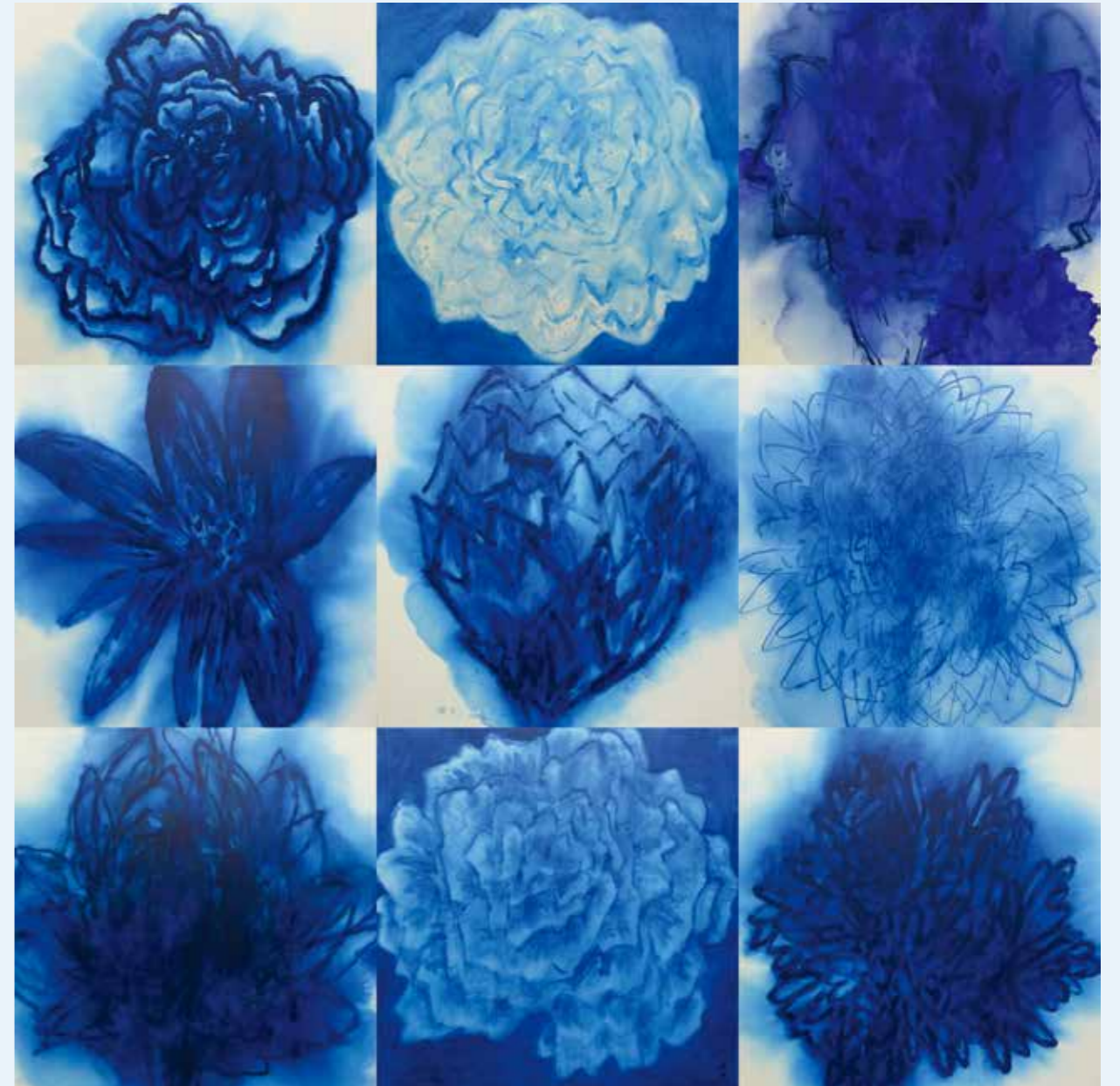
Sulwhasoo

VOL.74 JULY/AUGUS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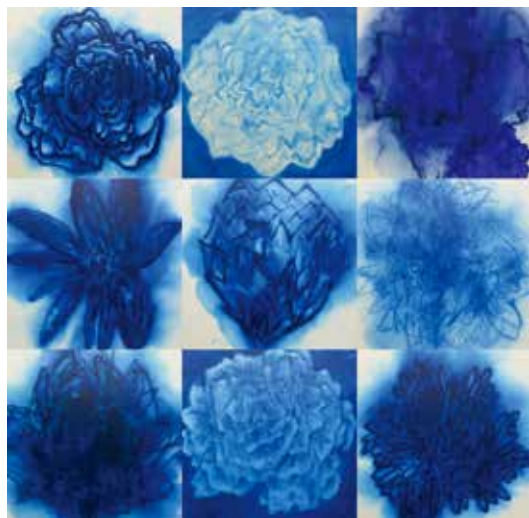
VOL.74

Sulwhasoo

Sulwhasoo



JULY/AUGUST 2016



Garden Blue / 김선형
 면 위에 혼합재료, 366×366cm, 2013

길고 커다란 붓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푸른 물감들이 저마다의 꽃을 화폭 위에 피운다. 일필휘지로 그린 그림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청량감으로 넘실거린다.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하며 2008년부터 〈가든 블루(Garden Blue)〉 연작을 선보이고 있는 화가 김선형의 붓끝에서 나온 꽃들은 모두 청색이다. 청색이 가진 다양성, 그 다양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러 기운들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여러 안료를 섞어 맑고도 묵직한 청색을 만들어냈다. 광목이나 한지에 푸른 물감이 번지고 스며들면서 꽃들은 자유롭게 꽃잎을 터뜨리기도 하고, 바람결에 흔들리기도 한다. 꽃을 바라보고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에 화가 김선형은 꽃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그림을 그린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가슴속의 감동을 옮겨내기 위해 푸른 물감과 붓을 드는 것이다. 힘차면서도 유연하게 뻗어나가는 붓질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듯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순간의 감동대로 물드는 색감의 흔적은 늘 새롭게 분출해내는 그의 감동과 역사를 기억해내는 분명한 단서를 남긴다. 에디터 권자에

As the big, long brush starts to dance, the blue paint fills the canvas with unique flowers. The images created with a single brush stroke exuded serenity not found elsewhere. All of the flowers bloomed at the tip of the brush of artist Sunhyung Kim, who reinterpreted and amplified oriental paintings into modern artworks. The artist has presented the “Garden Blue” series since 2008 with exotic blue-hued flowers. In order to express the various energies created by the diversity of the color blue, the artist mixes various pigments to create a clear, yet dense, blue. As the blue paints are smudged on cotton or Korean paper, the flowers liberally burst into petals or dance in the wind. However, this is not achievable while observing the flowers, so Kim relies on memorizing every detail of the flowers in order to draw them as accurately as possible. The blue paints and brush are used to transfer the impressions from the heart that are intangible. The powerful, yet flexible, brush strokes diffuse the ceaseless vitality, and the colors that were based on the artist's memory of the subject left an impression and created a new history.

Sulwhasoo

JULY/AUGUST 2016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삼천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까지 전 세계 11여 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6,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1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U.S. and Canada, as the Asian beauty creator.



Sulwhasoo

VOL.74 JULY/AUGUST 2016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발행인·서경배 편집인·류재현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빌딩
기획 및 제작·설화수 MC 팀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아 미디어·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 기아빌딩 02)317-4921
편집·권지애, 윤연숙 디자인·조윤희
발행일·2016년 7월 1일(통권 제74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산인텍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펼 치 다

- 08 품격 있는 삶
물맛이로 심신을 달래다
- 12 피부 섬기기
마르지 않는 촉촉함으로 본이 다른
피부를 전하다
- 16 동서고금이 만나다
문화는 결코 상품이 아니다
- 22 新 공간을 보다
공공예술을 입고 거듭나다
- 28 건너다
단단한 자아에서 발현된 열정의 아름다움



누 리 다

- 36 설화인
오늘도 여전히 사랑이 좋다
- 44 어우러지다
하늘과 바다의 빛깔을 담다
- 50 설화풍경
원림에 깃든 자연의 영험함을 음미하다
- 54 설화보감
지혜로운 손길로 몸을 보양하다
- 60 아름다운 기행
물과 예술의 두 도시를 거닐다
통영 & 베네치아
- 66 설화수를 말하다
촉촉하고도 견고하게, 수분으로 여름 나다
- 72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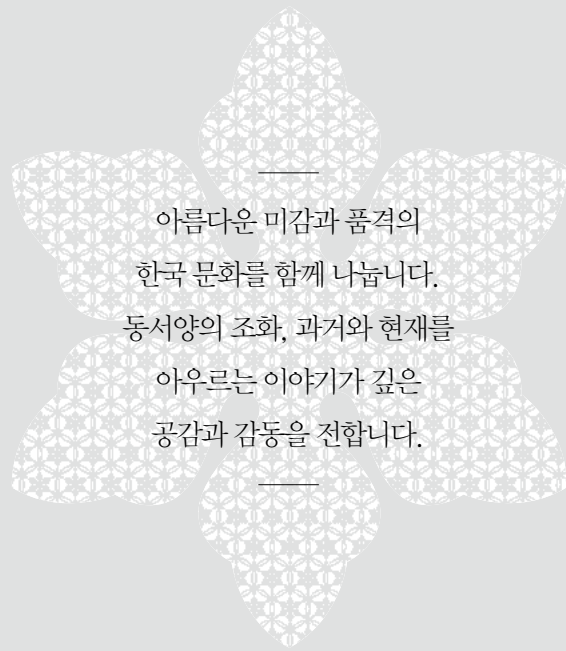


익 히 다

- 76 배움의 기쁨
못과 실로 완성한 일상 예술
- 80 한국의 멋
영롱한 바다 빛을 품다
- 82 설화애장
언제나 행복이 되는 것들
- 84 읽다
풍자와 해학, 삶에 대한 정감 어린 시선
〈장 자끄 상뻐 - 파리에서 뉴욕까지〉
- 88 집 안 단장
바라만 봐도, 시원한 바람 솔솔
- 90 몸 단장
자연으로 물들인 色感 속을 거닐다
- 92 설화 히스토리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감각의 여정을 마주하다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물맛이로 심신을 달래다 Calming the body and mind with ‘mulmaji’

옛 선조들은 맑은 물에 머리를 감고 폭포수에 몸을 맡기며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액운도 막아냈다. 또 술과 음식을 장만해 물기에서 시를 읊고 산수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심신을 정화하는 동시에 풍류도 잊지 않았던 선조들의 여름 나기.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곽예진

여름의 시작과 끝은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천문학의 여름은 하지(6월 중순)에서 추분(9월 중순)까지고, 기상학에선 6월에서 8월까지를 여름으로 친다. 24절기에 따르면 입하(5월 초)부터 입추(8월 초)까지가 여름이다. 하지만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만은 달라지지 않는다. 소서(小暑)와 대서(大暑)가 들어 있고 초복과 중복까지 끼어 있는 7월(음력 6월)이야말로 초여름의 풋더위를 녹여버리는 성하(盛夏(한여름)임에 틀림없다. 여름 중의 여름, 그중에서도 한복판인 유두(음력 6월 15일)에 여름 풍속의 대명사인 물맛이가 열리는 건 그런 까닭이다. 유두(流頭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다’는 뜻의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줄임말이다. 수두는 ‘물마리(마리는 머리의 옛말)’의 한자어로서 물맛이를 일컫는다. 신라 때부터 이어진 물맛이 풍습에 대해 13세기 고려의 문장가였던 김극기는 이렇게 적었다. “경주 풍속에, 유월 보름 동류수에 머리를 감아 액을 떨어버리고 술 마시고 놀면서 유두 잔치를 벌인다.” <김거사집(金居士集)>

There are no particular points to mark the start and end of summer. In astronomy, summer is from Haji (mid-June) to fall (mid-September), while in meteorology, summer is from June to August. According to the 24 nodes of seasons, summer is from Ipha (early May) to the day before Ipchu (early August). However, the time when the heat of summer reaches its climax remains the same each year. It is clear that July, which is the month of Soseo, Daeseo, Chobok, and Jungbok (June in the lunar calendar), marks the mid-summer that defeats the fresh heat of early summer. This is why mulmaji(“water greeting”), which is the most popular summer custom, is celebrated in Yudu (June 15 of the lunar calendar) in the heart of summer. Yudu is the shorter version of “Dongryusudumogyok”, which refers to the act of washing the hair and bathing in the water from the east. Geukgi Kim, who was a writer during the Goryeo Dynasty in the 13th century, has written about the mulmaji custom that existed from the time of Silla and stated, “Gyeongju celebrates Yudu on the 15th day of June to wash hair in the water from the east to eliminate the bad fortunes, and to drink and enjoy.” “Gimgeosajip.”



넓은 원형 백자 접시와 도자기 나팔 잔은 이세웅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백자 숙우는 김상인 작가 작품으로 해인요, 왕골 꽃 삼합과 원형 무지 화방석은 모두 강화도령화문석

유뒸날 마시는 술은 '유두음流頭飲'이라 했다. <고려사>에는 "유월 보름날 동류수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일을 제거한 뒤 회음會飲하는 것을 유두음이라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유두 물맛이는 단순히 찬물에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심신을 깨끗이 하고 부정을 쫓는 일종의 정화 의식이었다. 야외에서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을 수 없던 여인네들도 이날만은 거리낌 없이 머리를 풀어헤쳤다. 유두음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계음禊飲'이라는 신성한 명칭을 붙이기도 했다. 물맛이 뒤엔 햇과일과 밀국수(유두면), 밀전병 등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 불렀다. 이날 팔도의 강변과 계곡은 온통 유두 잔치로 떠들썩했는데, 유뒸날을 서늘하게 보내면 더위를 먹지 않고 여름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유두는 이 땅에서 생겨나고 이어진 한민족 고유의 풍속이다. 단오를 비롯한 여름철의 다른 풍습들은 한·중·일 세 나라가 대체로 비슷하지만 유두 물맛이는 오직 한반도에만 존재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동유가 펴낸 <주영편書永編>에도 "이 나라 명절 중 유두만이 고유의 풍속이고, 그 밖의 것들은 모두 중국에서 절일節日이라 일컫는 날"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학우는 <농가월령가> 유월령六月令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삼복은 속절俗節이요 유두는 가일佳日이라/ 원두밭에 참외 따고 밀 갈아 국수 하여/ 가묘家廟에 천신薦新하고 한때 음식 즐겨보세/ 부너는 해피 마라 밀기울 한테 모아/ 누룩을 디디어라 유두국을 치느니라." S

The alcoholic drink served on Yudu was called "Yudueum". Yudu mulmaji was not only about washing the body in cold water, but it is also a kind of purification ritual to cleanse the body and mind, and drive away bad luck. The women, who were not allowed to wash their hair or bathe outdoors, were able to untie and wash their hair without restriction on that day. After mulmaji, the people gathered in order to participate in "Yuducheonsin", which is a ritual that involved offering fresh fruits, wheat noodles (Yudumyeon), and wheat snacks to the ancestors. All of the riversides and valleys across the nation were crowded with people celebrating Yudu because they believed that cooling the body on Yudu would help them stay healthy even in the heat, and prevent summer diseases.

Yudu is an original custom that was created and followed only in Korea. Other summer customs, such as Dano, were commonly found in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the mulmaji of Yudu only existed in the Korean Peninsula. "Juyeongpyeon", which was published by Dongyoo Jung, was a Silhak scholar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It also states, "Only Yudu is the original custom of this land and all other holidays are from China." Hakyoo Jung, who is the second son of Yakyong Jung, sings the lyrics in Yuwollyeong of "Nonggawollyeongga": "Sambok is Sokjeol and Yudu is Gail. / Let's pick Korean melons and grind wheat to make noodles / to serve to the gods at the shrine and enjoy the seasonal food. / Women should save the wheat / to make the yeast for Yudugok."



블루 빛 도자 유리진은 양유완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하늘빛 도자기 연화 접시와 흰빛 연잎 접시, 흰빛 참외형 볼은 모두 광주요, 꽃잎 모양의 도자기 접시는 스타일리스트소장품.

마르지 않는 촉촉함으로 본이 다른 피부를 전하다 Essentially renewed skin with unwavering moisture

수분을 가득 머금은 피부는 어떠한 환경에도 흐트러짐 없는 생기와 활력을 발휘한다.
마르지 않는 천연의 샘처럼 언제나 촉촉한 피부, 설화수의 수유크림으로 완성한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객예진 일러스트 임성구

동이 뜨기 시작하는 고즈넉한 아침, 곧게 뻗은 자작나무 사이로 한여름의 이른 햇살이 뻗어져 나온다. 청명한 생명력이 가득 찬 이곳에 들어서면 나무와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수피가 하얗고 곧은 자태가 아름다워 숲의 여왕이라 불리는 자작나무의 기운은 외형에만 그치지 않는다. 언 땅이 녹고 봄비가 내릴 무렵 채취할 수 있는, 물이 깊게 오른 자작나무 수액에서 더욱 강인한 내면의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수유크림의 으뜸 원료이자 진정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자작나무 수액은 수분 공급은 물론, 수분을 순환시켜 수분 길을 활성화시켜주는 영특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풍부하게 수분이 공급되더라도 피부 속 수분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피부는 만족할 만한 촉촉함을 느낄 수 없기에. 이렇듯 피부 수분 길을 열어주어 고르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자작나무 수액은 피부를 더욱 촉촉하게 다스려준다. 외유내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작나무는 지치지 쉬운 여름의 시공 안에서 범접할 수 없는 풍부한 영양과 청량한 기운을 전달해준다.

When the day is about to break at dawn, the early sunshine of the mid-summer sprinkles over the firm and straight branches of birch trees. As you step into this place that is filled with clear vitality, you can feel the 'energy' emanating from the trees and the leaves. The energy of the birch tree, which is known as the queen of the forest because it is white and solid, does not just come from its appearance. The internal energy becomes more powerful because of the birch sap, which can be collected with the land thaws and the spring showers. The birch sap, known as the top ingredient of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is a smart substance because it does not only moisturize but it also allows the circulation of moisture to open up the waterways. When ample moisture cannot fulfill the moisturization of the skin because it is not well circulated throughout the skin, the birch sap deeply moisturizes the skin and ensures the even delivery of moisture. The birch trees, through which beauty emanates from the inside, supply unmatched nourishment and cooling energy in the summer when you are prone to get tired easily.





수유크림

즉각적인 수분 공급뿐만 아니라, 피부 사이를 촘촘하게 메워 수분이 증발되는 것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수분진정크림 50ml.

나무 위로 맑게 차오른 자작나무 수액을 담은 수유크림은 세대를 더할수록 속 깊은 청량감으로 피부에 본이 다른 수분감을 선사한다. 바르는 순간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닌 피부가 달아오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기에 지친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진정 기능'을 갖춘 것이다. 원활한 수분 순환과 피부 진정을 책임지는 자작나무 수액, 수분 공급에 탁월한 맥문동과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새싹삼으로 완성되는 설화수만의 수분 비법을 통해 진정, 유지 등의 균형 있는 케어가 가능한 수유크림. 피부 위에 매끄럽게 발리는 텍스처와 맑은 기운이 감도는 상쾌한 향 또한 일품이다.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순간에 퍼지는 숲 속의 향기는 휴식의 순간을 선사하기에 데이크림은 물론 잠들기 전 수면 팩으로 활용해도 좋다. 수유크림을 도톰하게 발라주면 낮 동안 지친 피부에 생기를 찾아주고, 밤사이 달아올랐던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에 끌려다니지 않는 당당한 수분력을 갖춘 피부, 언제 어디서나 촉촉함이 감도는 생기의 절정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S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which is formulated with the clear birch sap from trees, replenishes the skin with essentially new moisture and deeper cooling over generations. It is not simply moisturization that quickly goes away, but it creates an environment where the skin does not heat up due to the true 'soothing effect' that relieves all skin stressors throughout a tiring day.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completes Sulwhasoo's original moisturizing secret with the birch sap to ensure the effective delivery of smooth moisture circulation and soothing effect, and liriop platyphylla. Together, they guarantee balanced care for soothing and long-lasting moisture. The smooth skin texture and the fresh, energetic scent also reign supreme. The scent of the forest diffuses instantly at the moment of smooth, non-sticky penetration and it offers genuine relaxation. You can use the day cream as a sleeping mask before going to bed. Apply a thick layer of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to revitalize and cool tired skin. The skin will be filled with confident moisture and will not be damaged by climate or environmental changes. Enjoy the climax of vitality with adequate moisture anytime, anywhere.

수유크림
사용법
How to use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Step 1

세안 후, 윤조에센스 다음 베이직 스킨케어 제품을 발라준다.
Apply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after washed face following with basic skincare products.



Step 2

500원 동전 크기의 수유크림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준다.
Apply a dollop (the size of 500 won coin) of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evenly on your entire face.



Step 3

건조함이 느껴지는 부분에 수유크림을 덧발라 손으로 감싸 흡수시켜준다.
Reapply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on dry area and envelop the area with your hand so the cream is absorbed in your skin.



문화는 결코 상품이 아니다

Benjamin Joinau

벵자맹 주아노

인류학자이자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한 칼럼니스트인 벤자민 주아노 홍익대 불문학과 교수.
한국에서 스물두 번의 사계를 겪은 그에게 대해 한국의 문화와 음식은 어떤 대상일까. 학자로서의 해박함이 묻어나는 그의 이야기는 날카로웠지만 따뜻했다. 함께 어깨를 걸고 살아온 한국인에 대한 애정 때문이리라.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제호





벤자민 주아노 교수가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한국 작가의 문학작품들.

오랜 시간 지켜본 한국의 문화와 음식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지난 20여 년 간 한국이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졌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다. 주관적 측면에서 보자면, 22년 전엔 미지의 세계였던 한국의 모든 것이 생소하고 신기했지만, 이방인도 한국인도 아닌 경계인으로 바라보는 지금의 한국은 지극히 익숙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 시야를 좁혀서 음식 문화를 예로 들면, 여러 요인으로 한국의 음식이 대중화되고 다양해진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더 맛있어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콧 집어, 서울의 대중 음식은 질이 떨어졌다고 본다. 내 입맛이 달라진 면도 있으나, 즐겨 찾던 맛집의 맛이 예전 같지 않으니 말이다. 기업화되면서 집 간장과 재래 된장을 덜 쓰는 대신, 조미료를 더 쓰고 수입 김치를 사용하게 돼서가 아닐까 싶다. 비관적 진단이지만 유기농과 슬로푸드, 홈메이드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있어, 앞으로는 좋은 쪽으로 발전할 거란 희망도 있다.

대중 음식의 질이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을까? 흔히 핫플레이스라고 말하는 홍대와 삼청동, 가로수길을 보면 값싸고 양 많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들로 가득하다. 소비의 중심인 젊은 층을 겨냥한 '유행'과 '규격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세대만을 겨냥한 획일화된 음식이 유행하고 깊이가 부족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음식뿐 아니라 전반적인 동네 문화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문화까지 상품화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따라서 '문화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You have been observing Korean culture and food for a long time. What do you think have changed?

It is unquestionably true that Korea has changed drastically in the last 20 years. From my perspective, everything about Korea was new and wonderful when it was for me an undiscovered world 22 years ago. Korea is now very familiar to me and I am somewhere between a stranger and a Korean. Korean food has become so popular because of various factors, but I personally don't think it has become tastier. Seoul's popular foods, in particular, have lost their quality. My palate has changed, of course, but the tastes of my favorite foods are not how they used to be. It is probably because the restaurants have been run by entrepreneurs, and they use more chemical seasonings and imported kimchi, instead of homemade soy sauce and old-fashioned soy paste. This is a pessimistic diagnosis, though there is hope that it may improve as more people have become interested in organic food, slow food, and homemade food.

Can you explain why commercial food is poorer in quality?

The popular places, such as Hongdae, Samcheongdong, and Garosugil, are filled with foods that come in generous servings for a cheap price, and are easy to make. These venues are ruled by 'trends' and 'standardization,' targeting younger customers who dominate the market. All the dishes target a certain generation with a mass-producing culture that is characterized by superficiality and a lack of depth. It is regretful that this is leading to lower quality in the overall culture, and not just concerning food. It is sad that even culture is merchandised. Therefore, we need to approach the problem from the view of 'cultural management.'

서울의 변화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번치 않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강원도 정선에서 받았던 인상도 깊지만, 아리랑 TV의 한식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주 들렀던 전라도 지방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작은 마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거기서 맛봤던, 상업화로 변질되지 않은 음식들까지도.

한국에 오기 전에도 음식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는지? 이어서 프랑스 음식과 한국 음식의 차이점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음식보다는 보르도 지역 출신이라 와인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 우연한 기회에 음식 칼럼을 청탁받기 전까지,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열고 음식에 관한 방송과 연구를 병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까지 음식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인류학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가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정리하긴 어렵지만, 프랑스 음식은 '가스트로노미'와 '계급'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다. 귀족 요리와 평민 요리가 엄연하게 구분돼 있다. 반면에 한국 음식은 궁중 음식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계급화되지 않은 평민의 음식이 전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서울의 음식을 말하라면, 팔도의 음식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일부 외국 음식이 혼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코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요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예기다. 음식이란 유물이 아니라 늘 바뀌는 과정을 겪는 생물이다. 굳이 덧붙이자면,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궁중 음식을 재해석하는 일에 앞서 농촌 음식을 잘 살리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한다.

If you are not very fond of the changes in Seoul, do you think timeless beauty still exists?

I was deeply impressed by Jeongseon, Gangwon-do, but I can't forget the small villages in Jeolla-do, whose traditional culture in its beautiful, natural settings has survived. The food there has not yet been commercialized. I have visited them while hosting a Korean food show on Arirang TV.

Were you interested in food before coming to Korea? Please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French cuisine and Korean cuisine.

I am from Bordeaux, so I was more interested in wine than I was in food. Before I was asked to write a food column, which I did not expect at all, I had no idea I would open a restaurant in Korea, and work on TV and study food at the same time. I am still working with food probably because food is a big part of Anthropology. It is hard to state in one word, but French cuisine can be explained by 'gastronomy' and 'class.' Noble food is clearly different from peasant food. On the other hand, Korean food was not widely influenced by noble food, deriving its influence from many peasant dishes that are graded by class. If you are asking me to talk about the food in Seoul today, I would say that the food in the eight provinces has been mixed with foreign food from the U.S., Italy, France, and so on. I am not saying it's bad, but it's evolving into a new cuisine. Food is not a relic. It is a living thing that changes all the time. Moreover, I think rural food must be nurtured first before reinterpreting royalty food to globalize Korean cuisine.



심지어 장까지 담그셨다는 얘기도 들었다. 양평의 집이 있을 때는 그랬는데, 서울살이를 시작하곤 불가능해졌다. 할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간장과 된장을 담근 건 사실인데, 한국 음식의 기초에 대한 학자로서의 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류보다는 김치와 막걸리에 대한 지인들의 평가가 좋았다.

인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간만큼의 한국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루하루가 수많은 에피소드로 이뤄지는데 어떻게 딱 잘라 말할 수 있겠는가? 외국인이다 보니 이런 식의 질문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 '한마디'로 같은 질문이 스트레스가 되곤 한다. 간혹 유명인들이 이런 질문에 일화를 재생산하면서 일종의 가면을 만드는 걸 목격하곤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 어찌면 내일 가장 기억에 남을 새로운 에피소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을 보면서 새삼 번역의 중요성을 느꼈는데, 번역에 대해서 한 말씀 한다면? 15년 전부터 'atelier des cahiers'란 출판사를 프랑스에서 운영하면서, 다양한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 김동인과 현진건, 박완서와 은희경 등 한국 작가의 작품을 프랑스어로 옮기기도 하고, 한국 만화를 소개하는 책이나 <그림으로 보여주는 한국 문화> 같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여러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할 생각이다.

끝으로 여기는 어찌 보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하다. 힐링을 일로 하는 편이다.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한 삶이라고 할까. 계획이라기보다는 소망일 텐데, 앞으로는 일의 양보다는 집중도를 높이고 싶다.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갖고, 외부 일을 줄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쓰기에 집중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라면 소망이다. S

I heard that you even made Korean sauces yourself.

I used to when I had a house in Yangpyeong, but it's no longer possible today because I am based in Seoul. I made soy sauce and soy paste with the help of some elderly women, but I did so because, as a researcher, I was interested in the basics of Korean food. My acquaintances liked my kimchi and makgeolli better than my sauces.

What is your most unforgettable memory while living in Korea?

How could I pick just one thing when each day is filled with countless episodes? I get questions like these from time to time because I am a foreigner, but words like 'most' can be stressful. Some celebrities tell again and again the same anecdotes to hide behind a mask, but I don't want to be one of them. The most unforgettable memory may be created tomorrow.

Novelist Han Gang's 'Man Booker Prize' has shown us the importance of translation. How do you view translation?

I have run a publishing house named 'Atelier des Cahiers' in France for 15 years, and I am engaged in various translation jobs. I have published the translated works of Korean authors, including Dong In Kim, Jin Gun Hyun, Wan Suh Park, and Hee Gyung Eun, into French, and published books that introduce Korean cartoons and culture like <Sketches of Korea>. It is not easy, but I have no intention to quit.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and what are your plans for the future?

Work is my healing method. There is a fine line between my work and my private life. This is more a wish than a plan, but I want to concentrate on the purpose of my job than on the quantity. I want to take a step back, and cut back on the work to be able to concentrate on writing, which I think is most important for me now.



벤자민 주아노 교수의 홍익대학교 연구실에는 주아노 교수의 일과 개인적인 삶의 가치가 함께 숨쉬고 있다.

공공예술을 입고 거듭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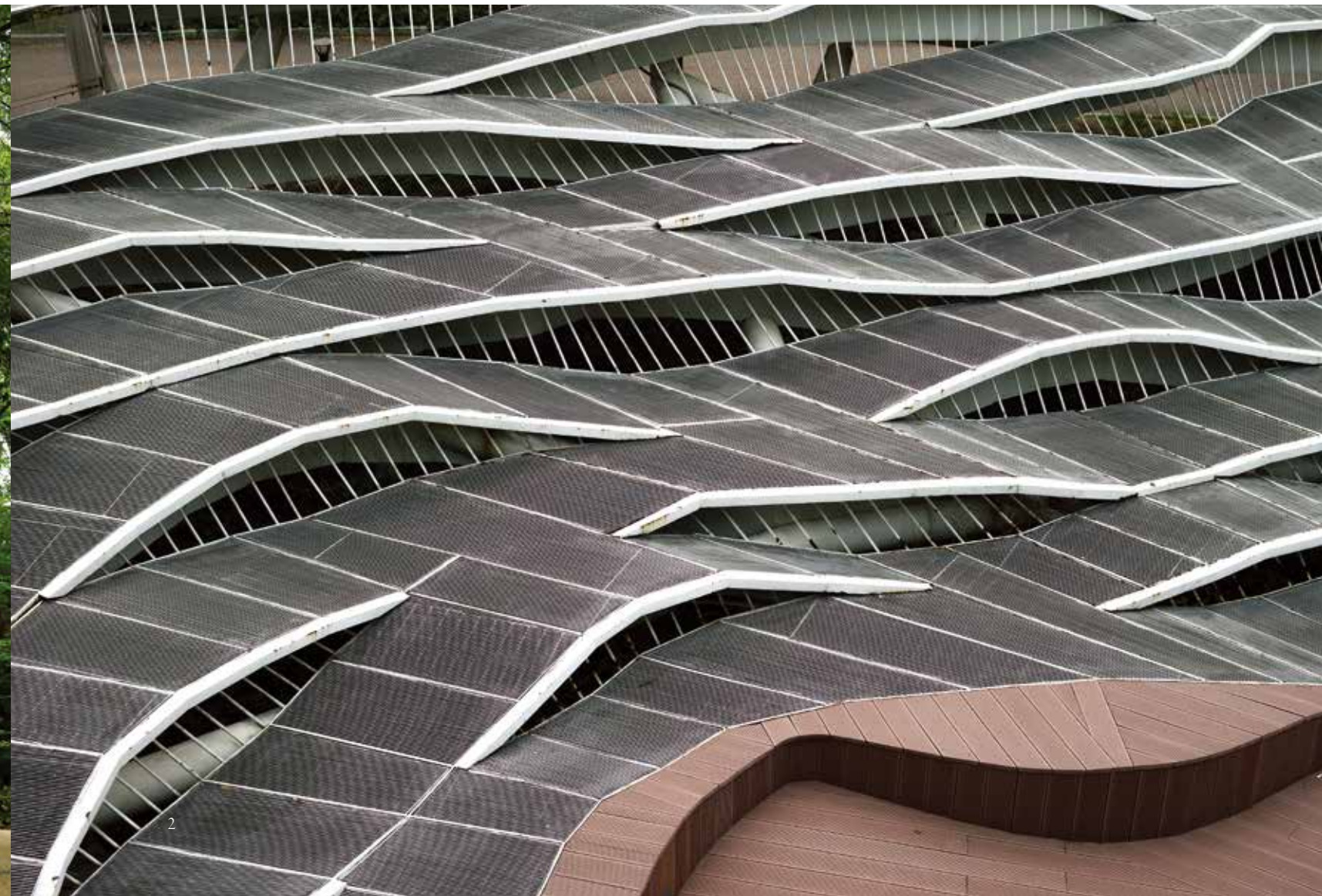
Rebirth with public art

수도권 일대의 휴식처로 사랑받았던 안양유원지. 1980년대 이후 퇴락의 길을 걸으며 겨우 유원지의 명맥을 유지하던 시절,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2005년)를 통해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숲 속 구석구석에서 만난 세계적인 작가들의 예술 작품들은 예상치 못한 감흥으로 다가온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파빌론

1 <가울 미로>, 에페 하인 2005

2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아콘치 스튜디오(비토 아콘치), 2006





수려한 경관을 가진 관악산冠岳山과 삼성산三聖山으로 둘러싸이고, 중심에 맑은 계곡이 흐르는 안양유원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1930년대 안양풀장이 문을 연 이래로 서울 근교의 각 광장은 휴양지로 기능해왔으며, 각종 오락 시설을 갖추고 있어 1950~60년대에는 휴가철이 되면 하루에 4만 명 이상의 피서객들이 안양유원지를 찾았다. 그러나 행락객들의 증가와 무질서하게 들어선 음식점들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고, 시설 쇠락과 노후 등 환경이 낙후되어감에 따라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안양유원지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nyang Public Art Project : APAP 2005)'. 단순히 먹고 놀던 유원지에서 국내외 유명 작가의 예술 작품이 곳곳을 장식하고 인공폭포, 야외무대, 광장, 산책로, 전망대 등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정비되었다. 당시 전 세계 23개국 73명의 작가가 안양유원지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97점의 작품을 제작했고, 그중 52점이 산책로를 따라 영구 전시되고 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미술,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활용하여 안양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 환경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행사로서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올가을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안양예술공원의 작품들은 세계적인 국내외 작가들이 공원을 둘러보고 해당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구상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공원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산책로를 따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작품들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즐거움을 선사한다. 눈으로만

1 <그림자 호수> 박윤영, 2005
 2 <계란은 삶의 의미를 찾는 나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토비아스 레베르거, 2007
 3 <리.볼.버>, 헤만 마이어 노이슈타트, 2005

Anyang Park, which is surrounded by the magnificent Mt. Gwanak and Mt. Samseong where a clear valley stream flows, has been crowded with people for a long time. It was a popular picnic destination near Seoul since the Anyang Pool opened in the 1930s. Its amusement facilities attracted more than 40,000 picnickers a day during vacation season from the 1950s to the 1960s. However, the once beautiful recreation area eventually lost its appeal as the increased number of visitors, unorganized eateries, and deteriorated facilities gradually destroyed the place. Anyang Park was revitalized again with the "1st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 2005". In addition, the artworks of famous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rtificial waterfalls, an outdoor stage, a plaza, a hiking trail, and an observation deck transformed Anyang Park into a new cultural space where people can simply eat and enjoy themselves. At that time, 73 artists from 23 countries created 97 pieces of artworks that blended well with the natural setting of Anyang Park. Of these artists, 52 are permanently exhibited along the hiking trail. The Anyang Public Art Project, which is held every three years, is Korea's only public art event that breathes life into Anyang's locality and urban environment in various areas of art, including fine arts, architecture, and design. The 5th Anyang Public Art Project will be held this fall. Visitors can enjoy various artworks as they walk along the hiking trail and breathe in the fresh air. The innovative artworks bring pleasure to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Visitors can touch,



보는 작품이 아닌 직접 만져보고 앉아보고 작품 속에 들어가 볼 수 있어 관람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교감한다.

안양예술공원에 들어서 예술공원을 따라 오르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들과 공공예술에 대한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안양파빌리온을 만나게 된다.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으로 꼽히는 알바루 시자 비에이라(Álvaro Siza Vieira)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설계한 건물이다. 백색 노출 콘크리트 건물은 독특한 비정형 공간 구조를 갖고 있어, 어느 각도에서도 같은 형태로 읽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파빌리온이란 명칭도 자연 속에 여가나 휴식을 위해 지어진 개방형의 건축물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어졌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시회,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예술 도서관 등 지역 문화 활성화와 문화 휴식처, 소통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안양예술공원 내 작품을 안내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문 도슨트가 작품 설명은 물론 미술사, 건축, 안양의 역사까지 풍부한 스토리를 곁들여 맞춤형 해설을 진행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안양파빌리온에서 산책로를 오르면 곳곳에 설치 작품들이 자리하는데, 벤치 역할이나 쉼터 역할을 하는 작품과 놀이터, 미로, 안내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들이 있어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단순 휴식처, 피서지였던 공간을 자연과 사람 그리고 예술이 하나 되는 장소로 탈바꿈한 안양예술공원. 공공예술의 꽃을 더욱 풍성하게 키우고 그 향기를 전파해 방문객들이 일상 예술의 호사를 더 오래 누릴 수 있도록 이어가길 바라본다. S

안 양 예 술 공 원
찾 아 가 는 길

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80

대중교통

·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마을버스 2번(안양예술공원행) 환승, 종점 하차

· 일반버스 1, 5-2, 51, 900, 5624, 5625, 5626, 5530, 5713, 안양예술공원 정류장 하차

자동차

경수산업도로(1번 국도), 안양예술공원사거리에서 안양예술공원 입구로 진입

1 <꽃>, 최정화, 2005

2 <안양상자집—사라진(탑)에 대한 헌정>, 볼프강 빈터 & 베르트홀트 회르벨트, 2005

3 <안양파빌리온>, 알바루 시자 비에이라, 2006



sit on, or interact with the artworks, so they can actively empathize with the creations.

Following the trail, visitors will come across the Anyang Pavilion that will help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Anyang Public Art Project and allow people to communicate with others about public art. This is the first building designed in Asia by Álvaro Siza Vieira, who is the last master of the 20th century modernist architecture. The exposed white concrete building has a unique atypical structure. It does not look the same from any two different directions. It was called a 'pavilion' because it is an open structure built for leisure or relaxation in nature. This place hosts various exhibitions, workshops, and experience programs. It also serves as a space for local culture, cultural shelter, and communication with a public art library, which is open to all visitors. It particularly offers a tour program with professional docents to guide visitors through the artworks at Anyang Art Park. They provide detailed explanations and background information on art history, architecture, and Anyang's history. This service requires RSVP. To the left of the Anyang Pavilion and up the trail, visitors can have easy access to the installation works that serve as benches, shelters, playgrounds, mazes, and guide signs. The Anyang Art Park has been transformed from a simple habitat for picnics into a place where nature, people, and art become one. It is expected that Anyang Art Park will produce an increasing number of colorful flowers of public art and diffuse the scent for many visitors to experience art more closely.

단단한 자아에서 발현된 열정의 아름다움 Solid ego: the beauty of passion

전통의 신앙과 더불어 현대의 문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그들의 관대함.
내·외면을 아우르는 설화수의 아름다움이 다시 한 번 인도네시아에서 빛나는 순간이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토포이미지





고풍스러운 정취와 활기찬 삶의 공존

섬과 신들의 나라 인도네시아. 예술인의 마을로 불리는 우부드와 서퍼들과 신혼 여행자들의 천국인 발리로만 인도네시아를 생각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일지 모른다. 인도네시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품고 있으며 기대치보다 더 큰 매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960만 명의 수도 자카르타는 끊이지 않는 매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도시로, 현재도 변화를 모색 중이다. 전통 문화와 동시대적 모던한 건물들이 오버랩되는 거리에서는 활기찬 기운이 24시간을 가득 메운다. 일찍이 유럽 문화를 받아들여 유럽풍의 주택가가 모여 있는 올드 타운 코타(Kota)를 비롯해 도심 곳곳에 고풍스러운 정취가 가득하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는 나이트라이프와 미식,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거대한 몰(Mall)들이 센트럴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자리해 있다. 이는 연평균 기온 27~30도의 무더운 날씨로 인해 쇼핑과 식사, 문화생활을 한 곳에서 하는 '몰링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몰이 몰려 있는 곳 중 스나얀(Senayan)은 본격적인 상업 지구로 양복을 입은 중권매과 글로벌 기업의 외국인들이 바빠 오가는 지역이기에 무작정 자연 속으로 가는 것이 두려운 도시인에게 익숙하고도 안정적인 휴식처가 되고 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다양한 건축 기법으로 만들어진 빌딩들은 자카르타의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도시의 일상이 거리를 가득 채운다.

The Coexistence of Old Sentiments and Energetic Lives

Indonesia is known as the land of islands and gods. It would be sad if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Indonesia is Ubud, the village of artists, or Bali, which is the heavenly destination for surfers and honeymooners. Indonesia is blessed with more diverse culture and arts than people know and it is filled with charms far exceeding your expectations. In particular, Jakarta,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Indonesia with a population of 9,600,000, is a city that constantly pursues change with its endless chain of charms. The streets that combine both traditional culture and contemporary buildings are filled with a potent energy round the clock. In the heart of Jakarta, you can find grand malls that are perfect for night life, gastronomic delights, and shopping. As a result of the hot climate with an average annual temperature of 27-30°C, the 'mallng culture' has developed for shopping, dining, and cultural life all in one place. Senayan, which is one of the mall districts, is a commercial district with many busy stock experts and foreigners working for multinational companies, thereby providing a familiar and safe place to relax for the urban dwellers who are not afraid to experience nature.



인도네시아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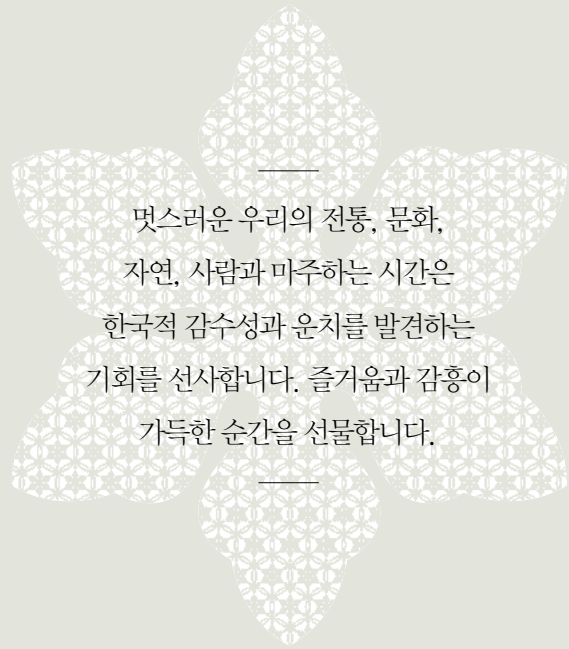
투명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소망하다

수준 높은 나이트라이프와 레스토랑, 카페가 밀집해 있는 스나얀. 이 지역에 위치한 여러 쇼핑 센터 중 인도네시아 최고의 백화점으로 손꼽히고 있는 소고 플라자 스나얀(SOGO Plaza Senayan)의 설화수 매장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2016년 1월, 최초 단일 매장 매출이 10억 루피아(한화로 8천8백만원 정도)를 달성했고, 40여 개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3위에 랭크되며 설화수의 명성을 더한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자카르타 내 총 5개의 매장에서 설화수의 아름다움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여성들만의 애정 리스트 보자면 1위는 역시 깊은 영양감과 촉촉한 윤기를 안겨주는 윤조에센스와 자음생크림이다. 에어컨이 강력한 물 안에서 장시간 생활하다 보면 극심한 건조함과 이에 파생되는 푸석한 피부와 주름 등으로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투명하고 맑은 피부 톤을 가장 이상적인 피부로 생각하는 만큼 자정미백에센스와 다함셀 크림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피부 겉만이 아닌 피부 속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케어해주는 설화수만의 한방 과학이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도 고스란히 감동으로 다가간 것이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설화수로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맑은 미소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S

단아하게 꾸며진 소고 플라자 스나얀 설화수 매장. 글로벌 브랜드다운 위풍당당함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여성들에게 설화수만의 속 깊은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Desire for transparent and brilliant beauty

Senayan is filled with excellent places for night life, restaurants, and cafés. Among the several shopping centers in the district, the Sulwhasoo store in SOGO Plaza Senayan, which is Indonesia's most prestigious department store, holds a special meaning. In January 2016, it became the first single store to achieve 1 billion IDR in revenues and Sulwhasoo was ranked at 3rd place among approximately 40 cosmetic brands with a solid foundation. The beauty of Sulwhasoo can also be experienced at the five stores in Jakarta. The most loved products among the women of Indonesia are the deeply nourishing and hydrating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Many people are concerned about severe dryness that cause roughness and wrinkles while staying in the malls with air conditioning, and these Sulwhasoo products have provided reliable solutions. Clear and glowing skin is most preferred by many customers, as expected from the very popular Snowise Brightening Serum and Harmonizen Regenerating Cream. Sulwhasoo's Korean herbal medicine and science to resolve the essential issues on the inside have deeply impressed the women of Indonesia.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미
다





오늘도 여전히 사랑이 좋다
Love is and will always be great

Seol Su Hyun

설 수 현

"인생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사랑으로 풀 수 있거든요. 결혼 생활, 육아, 일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 해결 가능해요." 세 아이의 엄마로 아내로 방송인으로 모든 역할을 즐겁게 해내는 사람.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여자 설수현, 그녀에게 듣는 삶 속의 사랑 이야기.

글 이재영 진행 윤연숙 사진 진재호

힘을 너무 쓰면 금방 지친다. 전력질주를 하면 오래 달릴 수 없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안간힘을 써야 할 일투성이다. 특히 육아가 그렇다. 에너지를 탈탈 털어 쓰지 않으면 큰일날 것만 같다. 많은 엄마들이 당장이라도 낙오될 것 같은 분위기에 늘 고군분투하며 산다. 그래서 경이롭고 행복한 삶이, 고단한 일상으로 다가온다. 설수현을 만났을 때 가장 처음 물었던 건 일과 육아 그것도 세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치열함이었다. 당연히 그녀 또한 온몸에 힘이 들어간 채 하루하루를 견딜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어떻게 현명하게 견뎌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대충 키워요. 힘을 빼고 설렁설렁 키워서 고단하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하지 않고 욕심부려 키우지 않는 게 제 육아의 노하우라 하면 노하우일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했으면 해요. 제가 하는 건 집에 오면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편하게 웃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정도예요.”

중학생이 된 큰아이는 아직도 집에 오면 엄마와 포옹을 한다. 사춘기지만 엄마나 딸이나 크게 힘들지 않다. 웬만하면 자율적으로 맡기고 엄마가 옆에서 지켜본다는 걸 알 정도로 살짝 터치만 해주는 편이다. 4학년 둘째와 2학년 막내는 아직까지 그저 사랑만 준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이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막내는 조금 달래면 쫓아와요. 며칠 전에도 피아노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만두고 싶다길래, ‘엄마는 피아노 치는 남자가 정말 멋지더라. 승우도 나중에 커서 피아노 치면 좋을 것 같아. 승우가 힘든 게 피아노가 아니라 선생님 때문이라면 학원을 바꿔볼까?’라고 했더니 계속하겠대요. 또 둘째는 보상심리가 강해요. 워낙 리더십 있고 외향적인 아이라 공부

We easily get tired when we exert ourselves too much. If we run at full speed, we cannot run as far as we want. Today's world is, however, filled with many things that we have to put all our energy on. It feels like something bad might happen if we do not exhaust our energy. The majority of mothers struggle alone in an environment where one is likely to be left behind. Thus, an amazing and happy life becomes weary. The first question we asked Suhyun Seol when we first met her was about her work and her childcare concerns, especially the fierceness with which she raises her three children. We naturally assumed that she was enduring each and every day by stiffening herself against possible obstacles she had to face each day. We wanted to know how she coped with the daily challenges. To our surprise, we got a totally unexpected answer.

“I don't pay attention to every detail. I don't get tired at the end of the day because I don't put all my attention into it. If you call it a “know-how,” my know-how is not doing things so diligently and raising my children without so much desire. I hope that my children feel their home is where they can be most comfortable. What I do is I teach them to relax without worry, smile with comfort, be consoled, and enjoy themselves at home.”

Her oldest child, who attends middle school, still hugs her mother when she comes home. She is already in her puberty but the mother-and-daughter relationship is relaxed. She lets her daughter do her own thing and only gets involved occasionally to let her daughter know that she is there for her daughter. With her second child who is in 4th grade and her youngest child





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됐는데 4학년이 되니 스스로 욕심을 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많고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면 하는 아이라 시험을 잘 보면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중학생이 된 지금도 칭찬이 최고인 아이예요. 칭찬만 많이 해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요. 이렇게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포인트를 집어내 육아를 하니 셋을 키운다고 혼란스럽거나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설수현의 노하우는 엄마인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맞추는 육아인 셈이다. 모든 걸 완벽히 해내는 것 같은데, 그녀는 스스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다.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지구력도 없어요. 불완전하죠. 그런데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완벽한 엄마였으면 아이들에게도 그러길 강요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욕심부리는 대신 관심을 주는 것도 그런 이유죠.” 설수현은 아이들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 또한 누구보다 제대로 볼 줄 알았다. “뭔가 끊임없이 해야만 욕구가 해소되는 사람이에요.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바느질도 하고 책도 읽고, 하루 종일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죠. 요즘은 글을 쓰는 게 재미있고 좋아요. 작년에 육아서 <설수현의 엄마수업>이라는 책을 냈는데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글을 쓰고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높이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머물고 싶지 않다는 의미예요. 바쁜 일상이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행복해요.”

그렇다면 좀처럼 나이 들지 않는 것 같은 앳된 외모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who is in 2nd grade, she showers them with love for now. And she thinks that is enough.

“I have different approaches for each of my children. With my youngest child, when I soothe him, he follows what I tell him. A few days ago, he told me he didn't want to play the piano anymore because he was afraid of his teacher. I said, 'I think men who play the piano are very attractive. I think you will be a wonderful man if you play the piano. If you still like playing the piano but don't like the teacher, how about we go to a different piano academy?' After that, he told me he would keep playing. My second child has a strong compensation mentality. She is an extrovert with a strong sense of leadership but there was a time when I felt that she was not very interested in studying so I let her do whatever she wanted. In 4th grade, she began showing a great interest in studying. Since she was very young, she was very protective of her own things and wanted compensation for what she had done so I told her if she does well on her exams, she will be rewarded. Well, she did performed well. My oldest child wants praise all the time. She does her best if I give her the praise she craves.”

Soohyun Seol's know-how in childcare is not about adjusting the children to the mother but adjusting the mother to her children. She seemed like a mother who did everything with perfection but she says she is happy because she is not a perfect mother.

Perhaps her young-looking face is the result of her positive mindset. We wanted to know her beauty secrets.

녀의 뷰티 노하우가 궁금해졌다.

“성격이 급해서 가만히 누워서 관리 받는 건 잘 못해요. 좀 당긴다 싶으면 팩을 자주하고, 무엇보다 음식에 신경을 많이 써요.”

오래 전부터 자연 그대로의 것을 즐겼다는 설수현은 저염식으로 건강을 유지한다고 했다. 넘치게 첨가하고 자극적인 걸 찾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뷰티 노하우가 있다면 아마 건강한 식습관에 있을 것 같다는 설수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운동을 해 땀을 흘리고, 무엇이든 주어진 것에 열심히 하는 그녀는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설수현은 자기 자신을, 가족을, 주어진 하루를, 그렇게 건강과 행복으로 엮어진 삶을 사랑한다. 생각해보면 그녀는 늘 사랑이 좋았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하며 살아왔다.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의 답은 언제나 사랑이었다. 형태가 계속 변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도 늘 기본은 사랑이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일에 대한 사랑, 일을 하며 만난 사람들에 대한 사랑 덕분이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였다. 닫혀진 문 앞에서 왜 그 열쇠를 꺼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여를,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여자들이, 인간됨을 쓰며 버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숨겨놓은 저 태양만큼 뜨거운 사랑을 찾아 행복해지길. 설수현의 말대로 사랑은 언제나 여전히 좋은 거니까. S

I am very impatient so I can't really get skincare treatments that usually take more than an hour. If my face feels tight, I apply facial masks often and, most of all, I pay attention to what I eat.”

Soohyun Seol, who has been enjoying natural food for a long time, says she maintains her health by following a low-sodium diet. She says she prefers food with a natural flavor over strong-tasting food with excessive additives. Soohyun Seol said if she had a beauty secret, it was her healthy eating habits. She exercises three to four times a week and does everything in her life with diligence, in order to keep her body and mind in harmony.

Soohyun Seol loves herself, her family, her days, and her life in general with an emphasis on health and happiness. When she thought about it, she always liked the feeling of affection. She has led her life solving most of the obstacles she faced by choosing to emphasize love. When there were problems with her children, the answer was always love. The form has constantly changed but the basis of her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 was love. It was her love for work and the people she met, which enabled her to keep on working. Love is the key to every problem. Why not think about taking the key out in front of the closed door? We hope that the mothers who are weary of childcare, the women who lost themselves, and all the people who are trying to put up a brave face every day find love that is as warm as the sunshine hidden inside their hearts. As Soohyun Seol said, love is and will always be great.

메이크업 아미(컬처앤네이처 02-3444-1999) 헤어 해리(컬처앤네이처)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오브제(1600-3982), 다투(1600-3178), 알도(1688-5502), 웨쿠(02-3446-3068), 스톤헨지(02-3447-7701), 해수엘(02-2268-5331)



하늘과 바다의 빛깔을 담다

출세하고자 하는 젊은이의 희망을 일컬어 '청운靑雲의 꿈'이라 했으며
 앞날을 계획함을 두고 '청사진靑寫眞'이라 하지 않았던가.
 무더운 여름, 하늘과 바다를 담백 담은 천청색을 가까이 두고, 푸른 꿈을 꾸어보자.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광예진

왼쪽 페이지 페이퍼 상들리에에는 Senton by 빌라토브, HUB(그레이, 민트, 네이비) 오브제는 모두 벤자민휴버트 by 윤현환즈, 청록색 원형 화기는 Edel Vase by 보칸센(청담점), 그레이 세라믹 화기는 라콜레트, CML 데이 베드는 Ushimaru Toshimoto by 보쿠즈, 패치 미니 쿠션은 모노콜렉션, 모시 블루 조각보 쿠션은 달빛단풍, 하늘색 모시 베게, 바람개비 모시 목 베게, 무릎 이불은 모두 강금성 작가 작품으로 빈콜렉션, 라탄 바구니는 수수소품,
오른쪽 페이지 (장식장 안 윗줄 왼쪽부터) 동물 인형 도자기 스노볼은 전상희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금속 촛대와 블루 화기는 모두 김윤진& 권중모 작가 작품으로 한, 청화 2단 찬합은 이세용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블루 컬러 옷칠 벽걸이형 거울은 여비진 옷칠 스튜디오, 블루 도자기 오일 램프는 이윤희 작가 작품으로 청와대시랑채, Broste의 필라 캔들은 빌라토브, 나비 패턴 세라믹 트링킷 박스는 빌라토브, 옥색의 호롱 촛대와 화병은 모두 이기진 작가 작품, 블루 스트라이프 Poitoux의 비스트로 체어는 핼리코, SIKa DESIGN의 이자벨 암체어는 라콜레트.

다른 모형과 모양을 지닌 블루 오브제의 축제

벽에 걸 수 있는 선반형 수납장은 꽤나 유용한 물건이자 장식의 오브제로도 손색없다. 원하는 대로 재단해서 만든 선반 안은 각기 다른 채도의 블루 소품들로 장식, 리드미컬한 감성으로 완성시켰다. 만드는 이의 감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블루는 때론 외일드하게, 때론 패턴과 만나 이색적이고도 이국적으로 스펙트럼을 넓힌다.



* 촬영에 사용된 스웨디시 화이트 마루는 구장 강마루, 화이트 컬러의 문과 페인트 벽은 DEW380White, 네이비 페인트 벽은 DE5874 Periscope로 단이드우드(논현점).

어떤 공간에서도 포인트가 되어줄 '쪽빛' 소품

채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블루 오브제 그중에서도 유리와 도자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시원함이 전해지는 힘을 갖고 있다. 유리라는 투명함이 주는 순수성과 각각의 색의 팔레트를 옮겨놓은 듯한 블루의 농담 효과, 여기에 섬세한 도자의 세공까지 서로 다른 출발점이지만 한데 모여 하나의 '색'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 페이지 긴 타원형의 블루 도자기 화병은 이정원 작가 작품으로 LVS크래프트 갤러리, 블루 톤의 유리 화병과 오브제 모두 양유완 작가 작품으로 모모와니, 수금 터치가 들어간 납작한 접시(Liquid Gold)와 그 위에 올려진 작은 붉은 유혜연 작가 작품으로 스튜디오 오유, 원통형의 긴 도자 화병은 이정원 작가 작품으로 LVS크래프트 갤러리, 빗살무늬가 있는 매트한 블루 화병은 보커샘(청담점), 입구가 작은 물방울 모양 화병은 이민수 작가 작품으로 LVS크래프트 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벽에 걸린 원형 옷걸이 액자는 정상연 작가 작품으로 여빈진 옷질스튜디오, 라탄 암체어로 이비자 체어는 리비에라메종, 리넨 소재의 낭화리딩 쿠션 커버는 모노컬렉션, 브라 소재로 된 왕골 바스켓은 최정유 작가 작품으로 윤현헨즈, 테이블 위의 원형 도자기 접시는 이세웅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팔각 백자 주전자와 잔은 모두 김상인 작가 작품으로 해인요, 나무에 나전과 삼베, 옷칠로 만들어진 나비 무늬 벽걸이 옷걸이 액자는 수갤러리, Rotin 벤치는 Brosle CPH By 덴스크 (역삼점), 실크 소재로 된 Love Fish는 모노컬렉션, 블루 패턴의 왕골 소재 카펫은 강화도령화문석



원림에 깃든 자연의 영험함을 음미하다

언덕 따라 피어오른 아름드리 꽃과 무심한 듯 하늘 위로 자란 나무들은 인생의 윤회 속에서 삶의 껍질을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을 벗 삼아 집과 정자를 배치한 원림, 소쇄원에서는 자연이 주는 생명력 그 이상의 고귀함이 전해진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500년 세월 속,
사색의 정원

어느 계절에 가더라도 그 운치와 멋을 보고 있노라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소쇄원. 한국의 민간 정원 중에서 최고라는 칭송을 받으며 50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도 영험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다. 일상을 위한 저택에서 떨어져 산수가 빼어난 장소에 지어진 별저別墅인 소쇄원은 조용한 사색의 정원으로, 발길을 들여놓은 순간 마음에 조용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풍류와 이상을 토로하던
담론의 산실

소쇄원은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풍광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긴 장소요, 이상을 토로하던 문화 담론의 산실이었다. 조선 시대 선비들에게는 수양과 학문뿐 아니라 풍류와 사림을 통한 선비 문화의 형성 또한 중요한 일이었으니, 그를 위한 장소인 정자나 별서를 경영하는 일은 곧 그들의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산물이었다.

넘치는 생기와
절정의 윤기를 담다

낮 시간 동안 쏟아지는 빛과 열로 인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노화 역시 가속화를 달린다. 이에 열 노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소선보크림은 피부를 식혀주고, 보호해주는 부채와 같은 데이 크림이다. 지치기 쉬운 여름 피부에 생기와 윤기를 선사하는 또 하나의 데이 제품, 바로 미안피니서다. 녹삼호™ 성분으로 피부 속 수분을 가득 채워주고 피부 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지혜로운 손길로 몸을 보양하다

Nurture the body with a touch of wisdom

숨까지 턱 하고 막히는 찝뚱더위에 피로와 나른함이 밀려온다.
 몸의 순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독소가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건강을 위해 독소는 배출하고 든든한 한 끼로도 부족함이 없는 요리들로 여름을 이겨보자.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천일인삼



아침, 속을 편하게 감싸주는 감칠맛 토마토 마리네이드와 수프

우리말로 '알려감'이라 불리는 빨간 토마토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B₂ 성분은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해 깨끗하고 탄력 있게 해준다. 또한 소화를 촉진해 위의 기능을 좋게 한다. 껍질 벗긴 토마토에 올리브오일, 식초, 다진 양파, 바질, 소금, 식초를 넣고 잘 섞어준다.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한 후 먹으면 감칠맛이 더욱 살아난다.

Breakfast, a delicious taste of comfort Tomato Marinade and Soup

The beta-carotene and vitamin B₂ from the red tomatoes cleanse impurities and increase resilience of blood vessels. They also help with digestion for a healthier stomach. Mix peeled tomatoes with olive oil, vinegar, chopped onions, basil, and salt. Marinade in the refrigerator for a day to enhance the flavors.





점심, 씹는 맛으로 먹는 즐거움을 선사
미역냉국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 재료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미역은 해독 작용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다. 미역에서 느껴지는 끈끈한 성분인 알긴산이 주인공으로,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이나 미세 먼지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여 해독 작용을 한다. 냉국이긴 하지만 국물의 양을 줄이고 미역과 야채를 수북이 담아 많이 먹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Lunch, the pleasures of a crunchy textured food, Cold Seaweed Soup

Seaweed is not only famous for aiding in blood circulation, but it is also great for detoxification. It is due to the alginic acid, which is a sticky substance of seaweed that attaches to the heavy metals and micro dusts in the body to remove the toxins. As cold soup, it is healthier to reduce the broth, and add more seaweed and vegetables.



간식, 고운 빛깔로 가뿐하고 독특하게
오미자 젤리

색깔 고운 오미자의 풍부한 리그난 성분은 간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는 데 탁월하다. 이 밖에도 시트럴, 사과산, 시트르산 등의 성분은 신경세포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오미자는 간단하게 냉차로 마시기도 하지만 물을 섞은 오미자 청에 녹인 젤라틴을 넣은 후 냉장고에 넣어 굳혀준다. 여기에 과일을 토핑해 먹으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오미자 젤리로 탄생

Snack, light and unique refreshments with attractive colors, 'Omija' Jelly

Omija(maximowczia) is great for detoxifying the liver. The citral, malic acid, and citric acid contents of omija prevent the accumulation of toxins in the nerve cells. Omija can be simply made into cold tea; however, you can also make jelly with it by mixing diluted omija jam with melted gelatin and hardening it in the refrigerator. This creates a one-of-a-kind omija jelly garnished with fruit toppings.

저녁, 에너지와 든든함을 함께 올려주는 닭 가슴살 인삼 냉채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간세포의 단백질 합성과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기에 간 기능을 증진시키고 알코올을 해독하는 기능이 뛰어난 인삼. 그중에서도 뿌리 외에 잎 줄기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새싹 인삼은 부족한 신체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시켜주는 일등공신이다.

Dinner, for elevated energy and health

Cold Chicken Breast and Ginseng

Ginseng saponin promotes protein synthesis and regeneration of the hepatic cells. As a result, ginseng strengthens the liver and detoxifies alcohol. Ginseng sprouts, which are edible from the roots to the leaves, are best for fast energy replenishment.



닭 가슴살 인삼 냉채 Cold Chicken Breast and Ginseng

재료 닭 가슴살 2쪽, 새싹 인삼 3뿌리, 비트 1개, 올리브오일 · 후춧가루 · 로즈메리 잎 조금씩, 깨 소스(통깨 · 간장 · 식초 2큰술씩, 설탕 1큰술, 참기름 1/2큰술, 레몬청 조금)

만드는 법

- 1 깨끗이 씻은 닭 가슴살의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한 후 올리브오일, 후춧가루, 로즈메리를 넣고 10~20분 정도 재워준다.
- 2 비트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삶아놓는다.
- 3 1에서 재운 닭 가슴살을 표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프라이팬에서 잘 구워준다.
- 4 사각 큐브 형태로 자른 비트와 닭 가슴살을 볼에 담고 새싹 인삼을 살포시 얹어준다.
- 5 취향에 따라 깨 소스의 양을 조절하여 위에 뿌려준다.

Ingredients 2 pieces of chicken breast, ginseng sprouts, 1 beet, olive oil, pepper, rosemary leaves, sesame sauce (whole sesame seeds, soy sauce, 2 tbs of vinegar, 1 tbs of sugar, 1/2 tbs of sesame oil, and lemon jam)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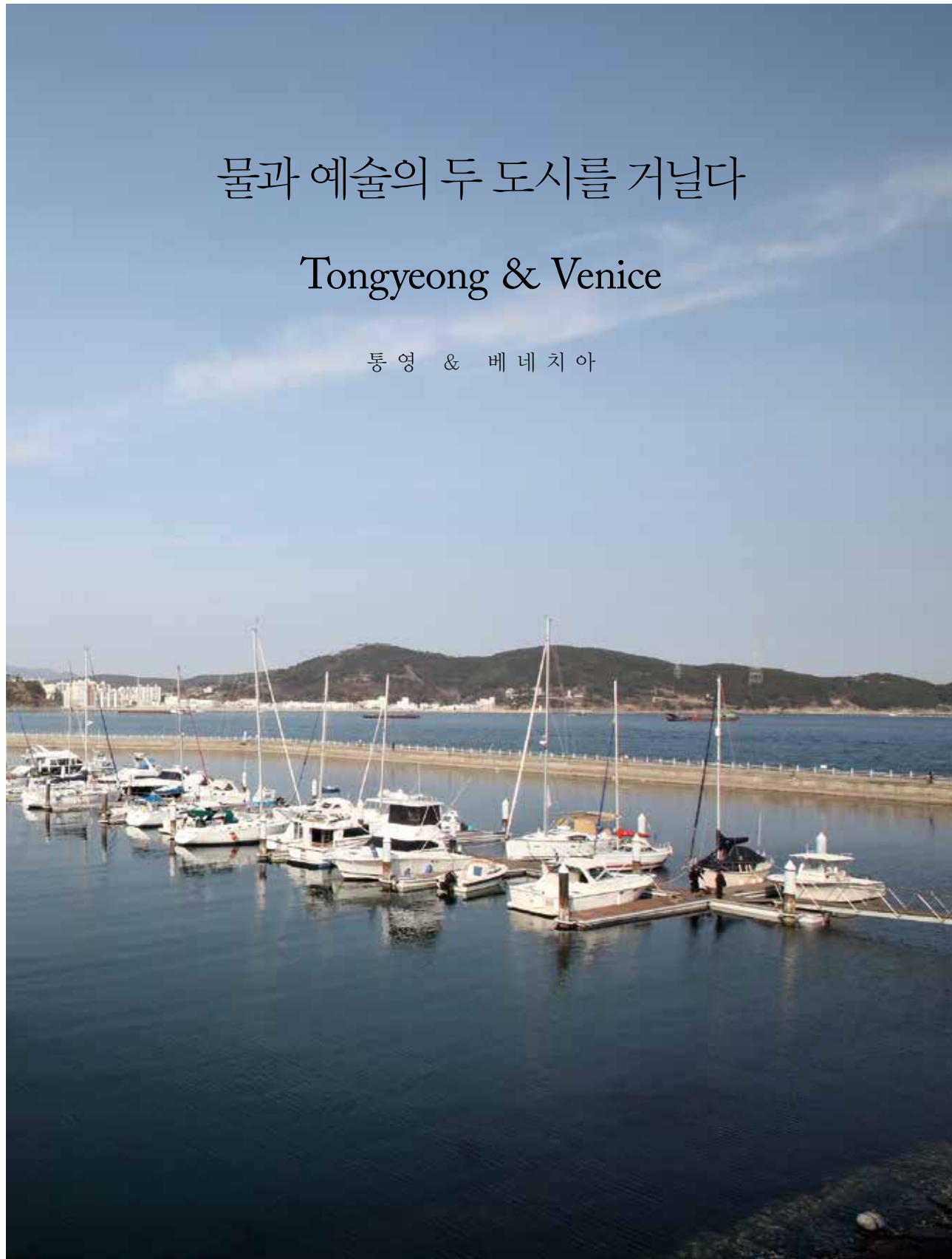
- 1 Clean and remove the excess water from the chicken breasts and marinate them in olive oil, pepper, and rosemary for 10-20 minutes.
- 2 Cook the whole beet.
- 3 Pan-fry the marinated chicken breasts in a frying pan until golden brown on the surface.
- 4 Slice the beet into cubes. Mix it with the chicken breast in a bowl and top with ginseng sprouts.
- 5 Sprinkle with sesame sauce to taste.



물과 예술의 두 도시를 거닐다

Tongyeong & Venice

통영 & 베네치아



푸른 하늘과 맞닿은 물결의 일렁임은 태양의 눈부신 빛을 받아 더욱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낸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토포이미지, 백지현





소박한 듯 파워풀한 감성들이 통영을 더욱 '예술'스럽게 만들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의 깊이가 고즈넉하게 통영 곳곳에 울려 퍼진다.

태곳적부터 물이 흐르던 거리는 공간의 쉼이 쌓이며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예술을 그토록 사랑하는 베네치아 시민들의 열정은 물과 함께 도시를 유랑한다.

순환하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는 것, 바로 물과 바다가 있는 시원한 곳으로의 여행을 꿈꾸게 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에 살고 있기에 동해, 서해 그리고 남해로 바다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행운을 가진 것 자체가 행복이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어 갈 수 있는 남해 바다는 부드럽고 온화하면서도 호탕한 기백을 담은 청명한 기운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들어놓는다.

이런 남해 바다에서 단박에 떠오르는 가장 이름난 통영은 '한국의 베네치아'라 불리며 물빛에 도시만의 아름다움을 아로새기고 있다. 이러한 통영의 수식 어구로 사용되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역시 아스라한 물빛이 도시 전체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도시 안에서 미로처럼 얽힌 수로들과 그 수로들을 따라 형성된 삶의 흔적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명화의 한 장면처럼 보고 또 보고 싶은 풍경들을 만들어낸다. 눈을 떠 창문을 열면 물안개가 머리맡까지 미끄러지듯 스며들고, 코끝을 스치는 짙은 물의 향기는 수천만 리 떨어져 있는 두 도시에서 똑같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새벽녘 풍경이다. 마치 클래식한 시집 한 권의 첫 페이지를 여는 듯한, 물과 함께 살아온 두 도시는 지금 가장 로맨틱하고도 축축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When the heat of summer takes over the cycle of the seasons, you will naturally think of going to a cool place near the water or the ocean. As Korea is surrounded by the ocean from three sides, we are fortunate to travel in any direction toward the East Sea, West Sea, or South Sea. The South Sea, in particular, is a little farther from Seoul; however, it mesmerizes the visitors with its clear, gentle, and positive energy. Tongyeong, which is the most popular destination along the South Sea, cherishes its unique beauty by the sea and considers itself as the "Venice of Korea". Venice, Italy, which is compared to Tongyeong, also stretches along the hazy water and the maze of waterways throughout the city, while the footprints of the people along those waterways create timeless masterpieces that will make you keep coming back. In these two cities that are thousands of miles apart,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e wet fog that permeates the air around you and the rich scent of the ocean once you open the window early in the morning. The two cities on water tell us the most romantic stories similar to the first page of a classic poetry book.

‘자다가도 일어나 가고 싶은 곳’이라 통영을 표현한 1903년대 천재 시인 백석 백가행 외에도 이곳에서 태어난 유치환, 박경리, 김춘수 등 많은 문화 예술가들은 시, 소설 등 작품 속에 통영을 등장시키며 한껏 애정을 표현해왔다. 해안의 드나들이 복잡한 리아스 식 해안으로 42개의 유인도와 109개의 무인도가 산재해 있는 통영의 섬들은 아름다운 바다 풍경으로 유명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데, 우리나라 8경 중 하나로 거울같이 잔잔한 물결, 곳곳에 떠 있는 섬들, 고요한 포구, 한가로이 물결을 가르며 번선 등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절경을 만들어낸다. 세월이 흘러 하얀색의 요트들이 넘실거리는 해양 스포츠의 중심지로 통영은 예나 지금이나 고요한 듯 활기찬 바다와 함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또 다른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아드리아 해의 여왕’으로 6세기경 탄생, 120여 개의 섬과 150여 개의 운하로 이루어졌으며 16세기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그대로 남겨져 있기에 걷고 있는 것 자체로 박물관을 관람하는 듯하다. 바그너, 모네, 니체 등 수많은 예술가와 지식인이 사랑한 도시로 현재에도 베네치아 가면 축제,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세계적인 예술 축제를 통해 그 명성을 잇고 있다. 통영과 베네치아는 물과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에게 선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S

In addition to 1930's gifted poet, Gahaeng Baek (Baekseok), who portrayed Tongyeong as "a place I want to visit even in my sleep", many artists, including the locally born Chihwan Yoo, Gyeongri Park, and Choonsoo Kim, have shown their affection for Tongyeong by featuring it in their poems and novels. The islands of Tongyeong along the complicated rias coast include 42 inhabited islands and 109 deserted islands. They formed the Hallyeo Haesang National Park, which is known for the beautiful view of the sea. It is one of the eight special sceneries of Korea with its clear and mirror-like waters, islands floating everywhere, calm wharf, and ships leisurely sailing across. It is a heavenly view not easily found elsewhere. As a center of water sports with countless white yachts, Tongyeong presents the beauty of the seasons with the calm, yet dynamic, sea.

Another city on water is Venice. Around the 16th century, it was hailed as the "queen of the Adriatic Sea", and it consisted of approximately 120 islands and 150 canals. Walking in the city is similar to a trip to the museum, as it cherishes the splendid cultural heritages of the 16th century. Its reputation is handed down by many world-class art festivals, including Venice Mask Festiva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Venice Biennale, as the city has been loved by many artists and scholars, such as Wagner, Monet, and Nietzsche. Tongyeong and Venice are writing new histories, and they are presenting to us the most beautiful moments by the waters.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도 예술을 갈망하는 두 도시의 색다른 아름다움.
시대가 흘러도 거리에 깃든 감성은 변함없을 것이다.

촉촉하고도 견고하게, 수분으로 여름 나다

청량한 물의 기운으로 피부에 청량감을 주고 물의 흐름을 다스려 물을 머금은 말갛 피부를 만들어준다.
여름에 더욱 위풍의 빛을 발하는 당당한 제품들을 소개한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곽예진



정연순 작가의 작품 <늘어난 시간> 안에는 전통의 미감과 더불어 미래를 향한 염원이 담겨 있다. 작품에 관통하는 빛 그리고 그 빛을 통해 공기의 흐름까지 느껴지는 건축적 구조체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 그 자체로 다가온다.

수용크림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땀과 열에 의해 밸런스가 깨진 여름 피부의 균형을 잡아주고 자작나무 수액에서 이끌어낸 수분 진정 기능으로 안정적인 피부 쾌청 온도를 맞춰주는 크림. 피부의 원활한 수분 순환을 도와 메마름 등 없는 강인한 수분력을 선사한다. 크림이지만 끈적이지 않는 신뜻한 사용감과 빠른 흡수력 덕분에 불쾌하기 쉬운 여름에도 상쾌함을 부여한다. **How to Use** 스팟툴러를 이용, 적당량을 덜어내어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펴 발라준다.



수용선플루이드 SPF 50+ PA +++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UV Protection Fluid

마치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는 듯한 산뜻하고 가벼운 사용감이 일품이다. 모든 피부에 부담 없는 데일리 자외선 차단제로 효율적인 자외선 차단은 물론 자외선과 에어컨 등으로 건조해진 여름 피부에 충분한 수분감까지 선사한다. 덧발라도 밀리지 않고 백탁 현상 없이 피부에 편안하게 감기는 마무리감 역시 탁월하다. **How to Use** 아침 손질 시 기초 손질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 부드럽게 발라준다.

수용미스트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Mist

뿌리는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진정 효과와 더불어 건조해진 피부에 촉촉한 편안함을 제공한다. 미세한 입자로 피부에 갈돌지 않으며 얼굴 전체로 균일하게 분사된다. 건조함이 느껴질 때마다 수시로 사용해도 되며, 세안 후 토너 대용으로 사용해도 좋다. **How to Use** 건조함이 느껴질 때, 수시로 얼굴에서 2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서 눈을 감고 얼굴 전체에 가볍게 뿌려준다.

쪽으로 염색한 이비카 섬유.
섬유가 갖는 고유한 물적 특성을
유지하며 정연순 작가의 지극히
심세한 조련과 솜씨를 보여준다.





공간의 사이를 맘껏 드나드는
빛과 공기처럼 무엇이든 소통
할 수 있는 여백을 남기고 있는
인간에 대한 작가의 철학을
담고 있다.



청운수딩팩
Trufresh Soothing Mask

조금만 움직여도 한껏 달아오르는 얼굴 피부 열을 즉각적으로 낮추어 진정시켜준다. 열을 제어하고 갈증을 멎게 하는 청매실 추출물이 더위에 지친 피부에 빠르게 생기를 부여하는 것 뛰어난 청열 보습 효과로 피부 속은 촉촉하게, 피부 겉은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 밤사이 깊은 진정 효과로 아침에 일어나면 생기 넘치는 탄력감이 느껴진다.

How to Use 야외 활동 후, 내용물을 덜어 도톰하게 도포한다. 10분 이상 충분히 흡수시킨 후, 화장솜에 화장수나 미스트를 적셔 가볍게 닦아내고 스킨케어 제품을 발라준다. 또는 잠들기 전, 도톰하게 도포한 후 수면을 취한다. 다음 날 아침에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낸다.



수분 과학의 정수, 수율라인 나이와 피부 타입은 달라도 부족한 수분감으로 인한 피부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진다. 넘치는 유분에 비해 부족한 수분, 나이 들에 따른 피부 건조화로 더욱 절실해지는 수분 등. 이에 어떠한 환경적 요인과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수분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터. 수율라인은 설화수만의 수분 비법으로 만들어진 제품들로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수분을 끌어들이고 청량감을 제공함은 물론, 원활한 수분 순환을 통해 마를 새 없는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남다른 내공을 갖추었다. 수분과 진정 효과로 피부를 보하는 설화수 수율라인이 피부 쾌청 온도를 지켜주기에 피부는 여름 앞에서 더욱 당당해진다. S

Hydro-Aid Moisturizing Line, The essence of moisture science Although your age and skin type may vary, most of you are concerned about skin problems caused by the lack of moisture. The amount of moisture in our skin diminishes as excess oil increases, and such lack in moisture leads to dryness of the skin as you ag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ortify the foundation of moisture so it will not be affected by environmental factors or changes. Hydro-Aid Moisturizing Line offers products that are formulated with Sulwhasoo's original moisturizing secrets, going beyond simply supplying ample moisture. It attracts moisture and cools the skin, while effectively retaining hydration that does not lead to drying because of the smooth circulation of moisture. Refining the skin with moisturizing and soothing effects, Sulwhasoo Hydro-Aid Moisturizing Line helps your skin withstand the summer heat as it allows the skin to bask confidently at the most pleasant temperature.

빛과 열에 지친 피부에 선사하는 건강한 에너지

균형을 되찾으면 건강하다

피부 속 불균형 요소들 간의 균형을 되찾아 피부의 바탕을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제3세대 메이크업 베이스인 설화수 메이크업밸런서. 다가올 8월 3호 라이트 그린 컬러를 추가하여 더 완벽한 라인업으로 고객에게 다가간다. 메이크업 베이스 본연의 기능인 보정력을 유지하면서 설화수만의 스킨케어 노하우도 그대로 담은 메이크업밸런서는 기존 베이스에서 주로 사용하던 실리콘 유화제의 미끈거림과 끈적임 현상을 개선한 '신유화 시스템'을 도입해 스킨케어 효능은 더욱 살리면서 피부 친화도가 높은 텍스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촉촉하고 편안하게 밀착되는 사용감을 전달한다. 또 항산화 베리 콤플렉스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힘을 끌어올려 준다. 뿐만 아니라 천연 유래 왁스와 오일의 블렌딩 효과로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맞춰주고 꽃잎 모사 파우더가 고르게 빛을 반사시켜 피부 톤과 결의 밸런스도 유지시켜준다. 1호 라이트핑크는 석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의 노란 기를 보정하는 동시에 혈색을 부여하고, 2호 라이트퍼플은 작약 추출물이 매끄러운 피부 결로 가꾸주고 칙칙한 피부 톤을 화사하게 밝혀준다. 2016년 8월 새롭게 출시되어 선보이는 3호 라이트그린은 피부의 붉은 기를 보정하고, 톤을 맑게 하며 감초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촉촉하고 깨끗한 피부 바탕을 완성한다. 메이크업밸런서[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SPF25/ PA++)] 1호 라이트핑크, 2호 라이트 퍼플, 3호 라이트그린 각 35g, 각 6만원대



무더운 여름, 피부를 순하고 산뜻하게 클렌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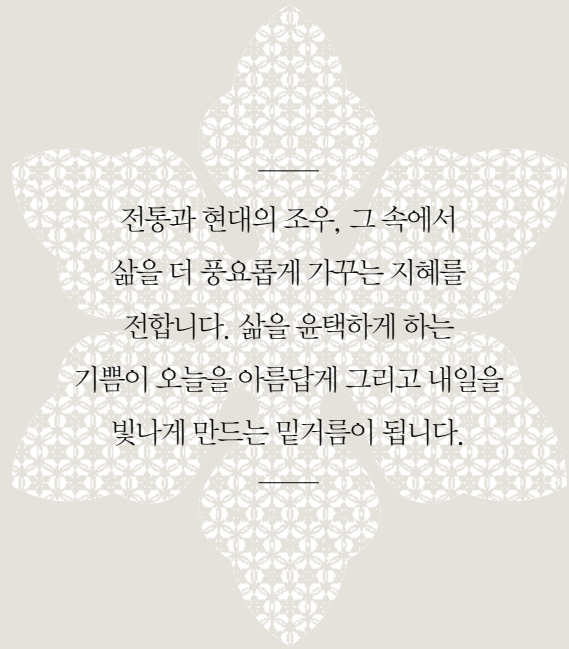
설화수는 고객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테디셀러 순행클렌징오일과 순행클렌징폼의 대용량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를 한정 판매한다. '순행클렌징오일'은 얼굴에 부드럽게 툽팅되어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을 없애주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로 산뜻한 사용감이 특징이다. 가볍고 빠르게 메이크업에 침투해 잘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제거한다. 뿐만 아니라 물에 잘 씻기는 워시오프 성분으로 세안 후 오일 잔여감이 피부에 남지 않아 산뜻한 마무리를 선사한다. 의이인(율무)과 진피(귤 껍질) 성분이 피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없애주며 행인유(삼구씨) 성분이 피부 각질을 정돈해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다. '순행클렌징폼' 역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으로, 피부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 유래 세정 성분이 부드럽게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 수분 막을 남겨, 순하게 작용하는 클렌징폼이다. 조밀하고 고운 거품이 피부를 깨끗하고 산뜻하게 씻어주고 부평초와 울피, 천연 폴리머 성분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며, 세안 후 땅김 없이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시켜준다.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두 제품 모두 200ml에서 400ml로 업그레이드된 넉넉한 용량으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순행클렌징오일 대용량 리미티드 에디션 400ml, 7만원대/ 순행클렌징폼 대용량 리미티드 에디션 400ml, 6만2000원대



수분 순환을 돕는 자작나무 수액으로
지친 피부에 마르지 않는 촉촉함이 차오른다

설화수 수유크림

피부 속 수분 길이 막히면 아무리 수분을 채워도 깊은 곳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함을 채워주는 설화수 수유크림. 지친 피부를 케어하는 자작나무 수액과 피부에 촉촉함을 채우는 맥문동, 수분을 피부에 오래 머물도록 도와주는 새싹삼이 피부 끝까지 닿는 수분 길을 형성합니다
마르지 않는 강력한 수분의 힘으로,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못과 실로 완성한 일상 예술

스 트 링 아 트

다시 집 꾸미기 붐이 일고 있는 이때, 직접 만든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신의 공간을 장식해보면 어떨까. 못과 실을 이용해 감각적인 디자인의 액자를 만들 수 있는 스트링 아트. 집중해서 실을 걸고 엮는 시간은 즐거움과 편안함을 선사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우연수집

집 안을 스스로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의 인기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자신만의 가구를 직접 만드는 DIY(Do it Yourself) 가구 열풍으로 주목받았던 셀프 인테리어, 꽤 오랫동안 주춤하다가 싶더니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집에 대한 인식 변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은 욕구가 반영되어 셀프 인테리어가 부활했다. 또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 등 이미지 중심의 SNS의 활약도 한몫했다. 해외 팔로워를 통해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셀프 인테리어 아이디어에 쉽게 접근하고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셀프 인테리어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의 공간을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과 컬러의 조합으로 꾸밀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공간의 상태와 구조를 변경하는 게 좋겠지만, 거대한 작업에 자신이 없거나 손떨 구석이 없다면 스타일링에 힘써 보는 게 좋다. 인테리어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액자만 한 것이 없다. 감각적인 인테리어 액자 하나라도 공간의 분위기는 달라진다. 집이 좁다면 벽의 정면보다 모서리나 좁은 벽에 건다. 여러 개를 배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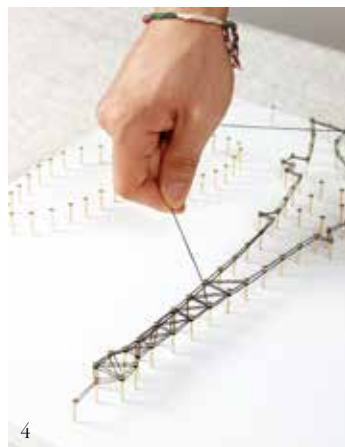
도 방법인데, 일정한 주제를 정하거나 포인트 컬러를 정해 통일감을 주는 것이 좋다. 벽에 걸지 않고 바닥에 기대어놓거나 장식용 의자 위에 두어도 멋스럽다.

나만의 취향과 감성,

정성이 담긴 스트링 아트 액자 한 점

여름을 맞이해 내 방 또는 우리 집을 조금 더 특별하고 예쁘게 꾸며보고 싶을 때, 비싼 아트 포스터나 사진 작품 액자, 그림 액자 대신 간단한 방법으로 인테리어에 활용할 수 있는 스트링 아트 액자 한 점을 만들어보자.

스트링 아트는 문자 그대로 스트링(String, 끈)으로 만드는 작품으로, 라인 디자인(Line Design)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일정한 간격의 직선의 조합으로 곡선을 만드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판재 위에 못을 박고 그 위를 실로 엮어 모양을 내는 예술이다. 스트링 아트의 두 점을 연결하는 규칙이 수학의 함수 원리와도 같기 때문에 실제로 함수를 배



스트링 아트 액자 만들기

준비물 원목 판재, 페인트, 페인트 붓, 도안, 송곳, 망치, 못, 실, 쪽가위

- 1 원목 판재는 모서리를 사포질하여 화이트 컬러 페인트로 고르게 칠한다(원목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 2 원목 판재의 크기에 맞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프린트하여 도안을 만든다. 못 박을 위치를 송곳으로 찔러 판재에 표시한다.
- 3 망치로 두드려 못을 1cm 정도 깊이로 박는다.
- 4 시작점이 되는 못에 실을 묶어 고정한다 뒤 연결해나간다.
- 5 끝점이 되는 곳에 실을 매듭지어 마무리하고 자투리는 5mm 남기고 잘라주어 마무리한다.

우연수집: 우연을 수집한다는 뜻으로 눈에 보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경험을 선물하는 선물가게이다. DIY 수업과 함께 어쿠스틱 가수들의 공연이 열리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위치: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62 / 문의: 02-778-0759)

울 때 스트링 아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스트링 아트 액자는 판재를 손질한 후 그 위에 도안을 대고 송곳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시작한다. 그림은 물론 글씨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유료 또는 무료 도안을 다운받아 출력해 사용하거나 직접 그림 실력을 발휘해 도안을 완성해도 좋다. 못을 박는 과정은 다소 거친 작업이지만 이후의 실을 엮는 과정은 안정적이라 남녀 노소가 흥미롭게 작업할 수 있다. 스트링 아트가 스트링 함수의 원리에서 시작했듯이 실을 엮을 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실을 걸어야 보다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규칙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지그재그 실을 감아도 불규칙한 선들이 모여 예쁜 그림을 그려낸다. 실은 보통 일반 면사를 사용하지만, 여름에는 메탈사, 겨울에는 털실 등으로 변화를 준다. 가는 실은 세련된 느낌을 전달하고 두꺼운 실은 묵직하고 따뜻한 느낌을 전한다. 어떤 컬러, 어떤 굵기의 실을 어느 정도로 촘촘히 채우느냐, 베이스가 되는 판재의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을 연출할 수 있다. 멋진 결과물에만 초점을 맞추면 즐거움 대신 스트레스가 따를지도 모른다. '마음 액자'라는 이름으로 스트링 아트 액자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우연수집'의 이강산 대표는 스트링 아트 액자를 만들 때는 여유를 가지라고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과 컬러를 사용해 나만의 개성이 담긴 액자를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세요. 막상 완성해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실을 다시 풀고 다른 실로 엮으면 됩니다.”

스트링 아트의 무한 매력

스트링 아트 액자의 매력은 이미지에 큰 제한이 없다는 것. 선과 컬러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표현 가능하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오브제들, 예를 들어 달항아리나 장신구 등을 세월의 흔적이 담긴 고재 위에 표현한다면 모던한 전통 인테리어 소품을 완성할 수도 있다. 또 업사이클링도 가능하다. 낡아서 못 쓰는 다과상의 상판이나 나무 도마 등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재활용하면 훌륭한 판재가 된다. 또 옷이나 뜨개질 소품을 만들고 남은 애매한 길이의 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액자 외에도 메이슨 자(Mason Jar)나 화병 모양으로 만들어 조화 또는 드라이 플라워를 꽂아둘 수 있게 해 감각적인 화병으로 완성할 수도 있고, 장식 전구를 더하면 조명 오브제로 활용할 수 있다. 쉽고 간단하게 나만의 인테리어 오브제를 만들 수 있는 스트링 아트. 일상이 흥미로워지는 시간을 선사한다. S

영롱한 바다 빛을 품다 Cherishing the bright ocean light

기다림으로 완성한 옷칠 바탕에 자개 장식을 더해 태어난 나전칠기 상자에서는 영롱한 빛깔을 일상생활 속으로 들여온 선조들의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그 미감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자개함 역시 표면의 아름다움을 넘어 그 속에 깃든 멋을 생각하게 한다.

에디터 윤연숙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헤브빈서울(김영준 명장)

나전은 고려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고려에서 조선 중기까지 왕실이나 귀족 등 상류층의 사용에 집중되었던 나전칠기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부를 지닌 상인층까지 사용이 확장되면서 가구를 비롯해 생활용품에 활용이 확대되었다. 고려 나전칠기는 작고 촘촘한 무늬를 면에 짚 채워 장식한 것이 특징이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바탕에 여유를 두고 무늬를 크고 대담하게 표현하거나 회화적으로 장식하였다.

뚜껑 전체 면에 연꽃 넝쿨무늬가 시문된 나전칠 상자는 뚜껑을 위에서 덮어씌우는 형태로 관복이나 의복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활짝 핀 연꽃 둘레에 넝쿨무늬가 어우러지는데, 휘어져 있는 상태의 자개를 무늬대로 오려낸 후 망치로 때려 붙이는 타발법打撥法을 사용했다. 이때 무늬의 면에 생긴 균열이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무늬를 만들어 내어 정교하면서도 풍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즐기는 자개를 길쭉하게 끊어 연결하는 끊음질 기법을 사용해 유려한 선을 만들었다. 나전칠기는 오래된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우아한 질감과 고운 빛깔을 담는 것은 물론 현대적인 감각으로 미니멀하게 풀어낸 김영준 명장의 <체크 직사각 자개함>은 작은 자개 조각들로 이루어져 보다 입체감 있고 화사한 빛을 뿜어낸다. 그는 천을 염색하듯 자개에 색을 더하고 전통 나전 공예를 추상화로 표현해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보는 이의 심상에 따라 다른 빛을 발하는 나전칠기 공예품. 여기에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흐를 바다가 품었을 법한 멋과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다. S

Najeon is an ornamental technique, wherein abalone and clam shells were thinly peeled and sliced into various shapes, and placed on the surfaces of objects. Najeonchilgi, which was mostly used by the royal families and nobility from Goryeo Dynasty through mid-Joseon Dynasty, was popularized by the wealthy merchant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It was applied to furniture and other home goods.

The Najeonchil Chest has a lotus vine pattern over the entire lid, and it was used as storage for official or daily costumes. The vine surrounds the lotus flowers in full bloom. It was made by cutting a curved mother-of-pearl according to the pattern, and then hammered onto the surface for attachment (Tabal method).

Master Youngjoon Kim's "Checked Rectangular Mother-of-pearl Box", which has changed the idea that Najeonchilgi is old, has produced an elegant texture and exquisite colors with a modern minimalist design. It appeared more three-dimensional with small mother-of-pearl fragments that gave off a bright light. He added color to the mother-of-pearl by dyeing the fabric, and he produced an abstract painting by using the traditional Najeon craft, which radiated a different light according to the angle of observation or the perspectives of the viewers. The light of beauty cherished by the sea is absolutely timeless and radiant.



<나전칠 모란넝쿨 무늬 상자螺鈿漆牡丹唐草文箱子>, 나무, 11.8×28×28cm, 17~18세기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체크 직사각 자개함>, 김영준, Mother-of-pearl, Wood(Cedrela sinensis), 24.7×16×1.5cm



언제나 행복이 되는 것들

여행 작가 최갑수

많은 날들을 여행지에서 보내는 최갑수 작가 곁에는 항상 카메라와 커피 그리고 음악이 있다.
 특히 촬영 전 커피 한 잔은 그만큼 가진 감성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리추얼이 된다.
 익숙한 풍경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일간지와 월간지 등 다양한 매체에 여행기를 기고하고 여러 권의 단행본을 통해 서정적이고 다정한 사진과 글로 메마른 감성을 말강하게 자극하는 여행 작가 최갑수. 그의 감성 사진을 완성하는 것은 35밀리미터 렌즈가 달려 있는 디지털 카메라이다. '여행 작가의 카메라로서 너무 평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을 때 그가 말했다. "개인적으로 35밀리미터 화각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것 하나만 가지도 다녀요. 35밀리미터 렌즈는 크게 과장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가의 의도에 따라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사진가의 시선이 제대로 담길 수 있지요." 사실 그는 두 해 전만 해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DSLR 카메라보다 2개, 렌즈 4개 정도를 챙겨 다녔다. 무거운 카메라 무게만큼 여행의 과정도 버거웠던 것일까. 프라하 야간 열차에서 준중형차 한 대 값의 카메라와 렌즈를 몽땅 도난당했다. 그것도 여행 첫날. 다행히 배낭에 콤팩트 카메라가 하나 있었고, 그것과 함께 15일 동안 여행하면서 또 다른 재미와 매력을 느꼈다. 그 사건 이후 35밀리미터 화각의 콤팩트 카메라가 최갑수 작가의 모든 여행길에 함께한다. 최갑수 작가에게 카메라만큼이나 사랑을 받는 물건은 모카 포트이다. 에스프레소 커피를 좋아하는 그는 촬영 전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음악을 듣는다. "여행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감정을 심는 작업이잖아요. 여행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배우들이 연기에 앞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감정을 고조시키듯, 저도 취재나 촬영에 앞서 감정을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감정

을 심는 데 커피와 음악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직업 촬영 특성상 헤뜨기 전, 새벽에 촬영 장소에 도착해야 하는데, 도시도 아닌 오지를 찾다 보니 커피를 마시기 힘들었어요. 대안을 찾은 것이 모카 포트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멋진 풍광 속에서 마시는 커피는 작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여러 곳을 다니고 경험한 여행 작가가 추천해주는 아름다운 여행지는 과연 어딜까 궁금했다. 질문을 던지자마자 그는 '제주도'를 꼽았다. 일이 아닌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1년에 서너 번 제주도를 찾는데 매번 제주도는 그저 좋단다. 그의 제주도 여행 노하우는 섬을 4등분하여 그중에서 한 곳에만 며칠을 머물며 좀 더 가까이, 좀 더 온전히 제주도를 담고 받아들이는 것. 그 외 우리나라 전국의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과 일본 오사카의 '지나이마치', '가라호리' 등은 모두 전통과 현대의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색다른 여행의 묘미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최갑수 작가는 얼마 전 인생을 다시 생각해볼 사건을 겪었다. 에콰도르 지진 현장에 있었던 것. 다행히 갈라파고스 취재를 끝내고 수도 키토로 돌아가는 크루즈에 탑승했지만,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는 상황. 파도가 거센 밤바다 한가운데에서의 12시간은 생애에서 가장 공포스러우면서도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 12시간이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소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하고 떠난 것에 끊임없이 후회가 밀려드는 12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시금 깨달았다. 행복은 커다란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S

풍자와 해학, 삶에 대한 정감 어린 시선 〈장 자끄 상페 - 파리에서 뉴욕까지〉

〈꼬마 니콜라〉, 〈좀머씨 이야기〉, 〈얼굴 빨개지는 아이〉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20세기 대생 거장 장 자끄 상페의 전시가 찾아왔다. 불쑥 나타나 엉뚱한 이야기를 건넬 것 같은 꼬마, 감미롭고 흥겨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올 것 같은 거리 등 상페 특유의 자유로운 선의 미학이 돋보이는 원화들을 만날 수 있다. 무더운 여름, 기분 좋은 전시 한 편이 필요한 순간 흥대 거리로 나서보길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KT&G 상상마당 갤러리



1



2

1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그린 '상페와 아이들' 섹션
2 상페에게 늘 동경의 도시였던 파리 풍경을 담은 작품들

따뜻한 화풍과 재치 있는 유머로 어린이에게는 행복한 순간을, 어른들에게는 소중했던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프랑스 삽화가 장 자끄 상페(Jean-Jacques Sempé, 1932~). 한 장의 그림에 무한한 감동을 압축해내는 그의 그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장 자끄 상페 - 파리에서 뉴욕까지〉전은 삶을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이 담긴 장 자끄 상페의 60년에 걸친 작업 세계를 조명한다. 상페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상경한 도시 파리를 시작으로, 미국의 주간지 〈뉴요커(The New Yorker)〉 표지 작업을 위해 도착한 도시 뉴욕에 이르기까지, 상페의 초기작부터 국내에 미공개된 최근작까지 150여 점을 총망라했다. 그동안 인쇄물로만 상페의 그림을 접해온 국내의 많은 팬들은 생생한 팬 터치와 수정한 흔적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원화를 감상할 수 있다. 장 자끄 상페는 1932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와 양부 밑에서 가난하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집 안은 항상 싸움과 언쟁이 끊이지 않았고 빛 때문에 수없이 이사를 다녔다. 그런 그에게 학교는 그가 소란을 피울 수 있는 곳이자 피난처였고, 라디오는

유일한 기쁨이었다. 라디오를 통해 접한 레이 벤추라(Ray Ventura)의 오케스트라에 매료되었고 그 후에는 재즈 연주자들에게 빠지게 된다. 상페는 14세 무렵에 학교를 그만두고, 자전거 배달, 치약 판매 세일즈맨, 와인 중개업 등의 일을 전전했다. 그러다 1950년 〈수드 오에스트(Sud-Ouest)〉라는 지방 일간지에 첫 데생을 기고하게 되면서 마침내 삽화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1960년 르네 고시니(Rene Goscinny)를 알게 되어 함께 〈꼬마 니콜라〉를 만들어 대성공을 거두었고, 1962년에 작품집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가 나올 무렵 그는 이미 프랑스에서 데생의 일인자가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30여 권의 작품집들을 발표하였고, 우수한 잡지들에 기고를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상페의 그림을 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첫 번째 '상페, 파리에 가다' 섹션에서는 상페에게 늘 동경의 도시였던 파리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파리는 예의 바른 세련된 사람들과 높고 멋진 건물들로 가득 찬, 자신의 그림을 보여줄 잡지사들이 모여 있는 꿈을 실현시켜줄 도시였다. 그런 파리이기에 최근까지도 그의 작업에 꾸준히 등장한다. 두 번째 '상페와 풍자' 섹션에서는 상페의 작품



1



2



3



4



5

1 <뉴욕의 상뻐(Sempé à New York)>, 펜, 잉크와 채색, 48×58.5cm, 2009

2, 3 <뉴욕> 표지 작업을 관람할 수 있는 '뉴욕의 상뻐' 섹션

4 <상뻐의 어린 시절(Enfances)>, 펜, 잉크와 채색, 49×39.5cm, 2011

5 이번 전시의 도록을 살펴볼 수 있는 매대에는 상뻐가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가 벽을 장식하고 있다.

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풍자적인 요소가 드러난 작품들을 선보인다. 풍자는 프랑스인들이 지닌 삶의 미학이며, 상뻐가 가장 프랑스다운 작가라고 불리는 요인이다. 상뻐에게 현실은 언제나 버거웠지만, 삶의 어두운 단면들을 유머와 풍자로 승화시켜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없이 가벼운 그림들로 표현했다. 간결한 문체와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의 작품은 누구나 쉽게 공감하면서도 웬지 모를 씩씩한 웃음을 짓게 만들며 현실과 유머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세 번째 '상뻐와 꼬마 니콜라' 섹션에는 가장 많이 번역된 프랑스 작품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꼬마 니콜라> 작품들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니콜라와 친구들의 좌충우돌 우정기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순수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상기시킨다. 상뻐의 작품에는 많은 아이들이 등장한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재채기를 하는 아이, 자전거를 잘 고치지만 못 타는 아이 등 어딘가 부족하고 매사에 실수투성이지만 꼭 안아주고 싶은 아이들. 네 번째 섹션 '상뻐와 아이들'에서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그린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은 상뻐 자신의 모습이며,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 내면의 모습이기도 하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타인과의 강박적인 비교와 경쟁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웬지 모를 평온함을 전한다. 마지막 '뉴욕의 상뻐' 섹션에서는 1978년 <뉴욕>의 첫 표지를 장식하며 2015년까지 100여 편이 넘는 표지 그림을 그린 상뻐의 뉴욕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뉴욕> 표지 작업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상뻐에게 그곳은 일종의 성지 순례였다. 뉴욕은 상뻐가 평소 좋아하던 재즈의 고향이자 추리 소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곳이었다. <뉴욕>의 표지 작가가 되는 것은 당대 가장 주목받는 작가임이 증명되는 일이었고, 프랑스 작가 최초로 표지 작업을 의뢰받았다는 사실은 상뻐에게 매우 뜻깊은 사건이 되었다. 프랑스 시사 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는 "상뻐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만의 경이로운 능력을 지켜가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깊고 씩씩하면서도 예리한 시선, 소소한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낸 스케

치 안에서 상뻐 특유의 순수함이 빛난다"고 평한 바 있다. 인간사人間事에 대해 때로는 신랄한 비판이, 때로는 집값과 따스한 유머가 담겨 있는 상뻐의 그림. 순수한 기쁨과 행복을 잃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뻐의 그림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과 여유를 전달한다. 익살스럽고 사랑스러운 상뻐의 그림 앞에 선, 이제 어른이 될 아이는 물론 어른이 된 아이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선다. S

장 자끄 상뻐 -
파리에서 뉴욕까지

전시 기간 ~8월 31일까지
 전시 장소 KT&G 상상마당 갤러리 2층
 관람 시간 오전 11시 ~ 오후 10시(입장 마감 오후 8시 30분, 휴관일 없음)
 도슨트 시간 오후 2시, 4시, 6시
 예매처 현장 예매 / 티켓몬스터
 관람료 성인 7000원 / 초중고생 5000원 / 36개월 이상 2000원
 관람 문의 02-330-6223

바라만 봐도, 시원한 바람 솔솔

기계의 도움 없이도 여름을 청량하게 만들어주기에 더욱 고맙게 느껴진다.
환경을 생각하는 명민한 자연 소재로 만든 여름 쿨링 아이템.

에디터 권자에 사진 김민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마치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하다. 앉으면 더욱 편안함이 느껴지는 'YODA EASY CHAIR'는 Kennethcobonpue By 인다디자인.



육각형 패턴 조각으로 조명을 켜면 독특한 문양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기에 작품 이름 역시 'Snow-Flake'다. David Trubridge By 로소룸.



대나무와 스틸 소재가 믹스된 라디오로 소재에서 느껴지는 쿨링감 또한 최상이다. 공간을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Dolmen Clock Radio'는 Rene Adda By 렉스코리아.

뜨거운 태양의 위엄이 느껴지는 찜통더위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시원함이겠죠. 선풍기, 에어컨 없던 시절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묘안을 자연에서 찾은 명민한 생활의 지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용한 자연 재료들 중에서 으뜸은 역시나 찬 성질을 갖고 있는 대나무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속에 나무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 대나무. 그대로 이용한 평상, 의자 등은 물론 가구와 부엌살림에 요긴한 바구니, 소쿠리 등 우리 생활 속에 자리한 대나무 공예품들은 시원한 자연 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들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나무를 활용해 가늘고 긴 대를 엮어 만든 죽부인과 손이 모터가 되어 만들어내는 자연 바람인 부채와 누워 있으면 서늘한 대나무의 촉감이 전신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대자리까지. 여기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한 대나무 소품으로 집 안 온도를 내리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S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곽예진



장식적 효과를 높인 파란 테두리 왕골 꽃 삼합. 오브제를 담아도 예쁘지만 그냥 놓고 보아도 눈이 즐거운 솜씨 가득한 작품이다. 강화도령화문석.



진한 꽃향기로 이름난 때죽나무로 만들어진 스탠드. 한낮의 부산함은 잠재워 주고 고즈넉한 조명으로 마음까지 진정시켜 준다. 한창균 작가 작품으로 오메.



바구니와 보자기가 하나로 만났다. 옷칠한 바구니에 천연 쪽 염색이 된 청색 보자기로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더했다. 박유진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 바람으로 식혀줄 부채는 당초나무를 응용한 연꽃 월계 넝쿨 문양으로 여성스러운 자태를 뽐낸다. 한국문화재단.



대나무 살을 이용해 마치 하나의 문양처럼 만든 컷넷 먼지떨이 도구다. 친환경 라탄 소재로 된 컷넷 비터는 BURSTENHAUS REDECKER By 첩터원.



전통 소재인 화문석과 유리와의 조화. 작가의 유연한 솜씨가 그대로 녹아 있는 오브제는 실용성 또한 일품이다. 양유완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꼼꼼한 맨시가 돋보이는 삼합은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할 물건을 넣어두면 더욱 좋다. 강화도령화문석.



대나무 플레이트 위에 올려져 있는 작은 사이즈의 4인용 차잔은 대나무 뚜껑과 더불어 예지 있게 마무리. LEXON by 렉스코리아.



모던해 보이는 사각 트레이. 잘 다듬어진 참나무와 단아한 문양의 실크스크린으로 만들어졌다. 손색없는 찻호반 트레이는 조병주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자연으로 물들인 色感 속을 거닐다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색감을 간직한 패션 오브제들.
 지친 여름의 일상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우리의 여름을 시원하게 물들인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실크 소재로 부드럽게 목을 감싸주는 스카프 산성 염색으로 그린 민화로 포인트를 더했다. 가방 손잡이에 달아도 예쁜 스카프는 정순주 작가 작품으로 플라보르.



마치 바다가 서서히 피어오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색채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종이 구김 느낌의 친환경 타이벡 소재로 만든 블루 솔더백은 조예령 작가 작품.



여름 시즌 대세로 등장한 플리츠 스타일과 스카프가 만났다. 그레이와 옐로 컬러로 은은한 듯 다채로운 감성을 일깨워주는 양면 스카프는 김주형 작가 작품.

해마다 글로벌 컬러 컴퍼니에서 지정한 컬러가 '트렌드'라는 물결을 타고 거리에 넘쳐나고 있지만 유행에 편협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담긴 컬러는 보는 이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입는 옷의 디자인에 따라 스타일이 정해지는 것처럼, 옷과 오브제들의 색감에 따라 그날의 감성이 정해지기도 하죠. 그러기에 색이 흐르는 대로 물들여지는 자연 염색의 묘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색감이 강렬한 것도 있지만 수채화의 느낌이 강한 옷과 소품들은 부드러운 감성의 이미지로 업그레이드시켜줍니다. 예로부터 색감을 위해 천연염료가 사용되어왔는데요, 화학 염료에 잠시 밀려났지만 최근 '노케미' 바람을 타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 염색의 매력은 판에 박은 듯 찍어낸 기성품과 달리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청량한 기운을 더해주는 전통 염색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들. 빛으로 물들인 삼베나 모시 등 천연 소재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세련된 아이템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을 시원하게 지내는 건 어떨까요. S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곽예진



몽숭이꽃 물들인 색보다 더 자연스러운 색감이 보는 이를 감동케 한다. 대나무 껍질로 천연 염색된 꼬임 반지는 한창균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트렌디한 소재로 만들어진 클라치백은 캐주얼 스타일은 물론 파티 드레스에도 잘 어울린다. 강렬한 듯 매력적인 번짐 프린트가 역시 일품. 조예령 작가 작품.



도자기에 은은하게 퍼진 푸른 색감의 문양이 눈길을 끈다. 독특한 패브릭 꼬임 장식을 더한 호우 브로치는 박애나 작가 작품으로 오매.



직접 물들인 바탕감을 자르고 손바느질로 덧대어 있는 전통 방식의 접기 기법을 활용해 만든 팔찌. 조하나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모시 소재로 면과 선을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만든 하늘빛 브로치는 김미나 작가 작품. (www.minakang.pe.kr)



우드와 실크 소재로 만들어진 리본 오브제는 목걸이로는 물론 다양한 용도의 패션 액세서리로 연출이 가능하다. 아세테이트 리본은 김주형 작가 작품.



실크와 원색 장식이 들어간 팔찌지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액세서리로 활용 가능한 명랑새는 이창숙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한복의 고운 선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플레어 스타일의 모시 수수꽃다리 치마는 디자이너 김영진 작품으로 차이킴.



먹 염색으로 물들인 단청 브로치는 경북공 단청초의 문양을 본떠 만들었다. 비에 쉽게 상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진 브로치는 미츠 By 해브빈서울.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감각의 여정을 마주하다 An invitation to a voyage of the senses

설화수만이 가진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하는 2개의 스파를 만날 수 있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심신의 균형을 되찾는 4개 향과 자연의 기운을 담은 6개 애플리케이션으로 에너지를 더하고 감각을 일깨우는 여행으로 초대한다.

에디터 윤연숙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오감을 충족시키는 감각의 경험을 통해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하는 2개의 스파가 자리하고 있다.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스파인 '설화수 스파'와 한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컨템포러리 한방 스파인 '설화수 밸런스 스파'가 그것이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설화수 스파'는 프로그램 전에 인삼 스크럽과 홍삼수 족욕으로 고객을 섬기는 마음을 전달한다. 이후 설화정 트리트먼트로 피부 세포 하나하나를 살아나게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설화수의 4대 향인 매화 지향(꽃), 솔지향(잎), 백단지향(나무), 윤조지향(숲)은 한국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심신의 안정을 선사하며 트리트먼트 효과를 배가한다. 또 한국 전통 소재로 만들어진 6가지 애플리케이션(경옥, 연옥, 호박, 백자, 흑요석, 자음단불)를 사용해 설화수 스파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트리트먼트가 끝난 후에는 한방 보양차와 한식 스낵으로 마무리한다. 4층에 위치한 '설화수 밸런스 스파'는 윤조지향을 이용한 설화수만의 한방 테크닉, 자연 채광이 가득한 트리트먼트 룸, 편안한 음악이 어우러져 평온하면서도 활기찬 기운을 전달해 재충전을 통한 감각의 풍요로움을 선물한다. 깃어웨이룸(Get Away Room)에서는 두한족열頭寒足熱의 한방 이론을 모티브로 재해석한 풋앤레그 집중 트리트먼트를, 파크뷰 룸(Parkview Room)에서는 도산공원의 사계절을 느끼며 페이스, 보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독창적인 리추얼을 선보이며 감각의 향연 속으로 인도하는 설화수 스파에서 홀리스틱 뷰티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S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has 2 spas that offer holistic beauty through sensual experiences to satisfy the five senses. The 'Sulwhasoo Spa' at the basement level treats its customers to a scrub service containing ginseng seed peels and red ginseng foot baths before each program. Then, the Rituals of Sulwhajeong will awaken the cells one by one, and the 4 major scents of Sulwhasoo used in the rituals—Plum Blossoms (Flower), Pine (Leaf), Sandalwood (Tree), and First Peace (Forest)—are inspired by the nature of Korea to comfort the body and mind, and multiply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Also, Sulwhasoo's special programs use 6 applicators made with Korean traditional materials (Jadeite, White Jade, Amber, Porcelain, Obsidian, JAUM Balancing Complex™ bowl). The programs end with a cup of Korean herbal medicine tea and Korean snacks. The 'Sulwhasoo Balance Spa' at the fourth floor offers Sulwhasoo's unique Korean herbal medicine techniques using Scent of First Peace, treatment rooms filled with natural lighting, and comforting music with a peaceful yet vibrant energy to regenerate the senses. The Get Away Room is for the Foot & Leg Treatment inspired by the Korean Herbal Medicine theory behind Cold Head and Warm Feet, while the Parkview Room overlooking Dosan Park offers facial and body programs. One can enjoy the wholesome experience of holistic beauty at Sulwhasoo Spas, guiding one to the feast of the senses through traditional rituals.



〈Sulwhasoo〉독자 선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뷰티 패키지 론칭을 기념하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1박 숙박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업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8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뷰티 케어와 휴식을 함께 즐기다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두 가지 뷰티 패키지를 선보인다.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홀리스틱 뷰티 브랜드 설화수의 제품 견본도 받을 수 있다.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이 준비한 특별한 뷰티 패키지를 소개한다.

Shop til' You Drop 패키지 : 슈퍼리어 객실에서의 1박과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의 시그너처 안티에이징 라인 '자음생' 견본 5종 및 신세계백화점 쿠폰북이 증정된다. 또한, 다음 날 아침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더 카페'에서 여유로운 조식 뷔페(2인 기준)를 이용할 수 있다. 패키지를 이용하는 투숙객은 온천수가 들어가는 테라피 풀과 유아 풀이 포함된 호텔 내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27만9000원부터(세금 및 봉사료 별도).

Beauty Styling 패키지 : 주니어 스위트 객실에서의 1박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이 운영하는 정샘물 인스피레이션에서 헤어 펌 혹은 염색, 메이크업, 켈 네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1인 기준/편도 차량 서비스 제공). 또한, 호텔 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및 사우나도 이용 가능(2인 기준)하며, 호텔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왕복 무료 차량 서비스가 제공된다. 패키지를 이용하는 투숙객은 온천수가 들어가는 테라피 풀과 유아 풀이 포함된 호텔 내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73만9000원부터(세금 및 봉사료 별도).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브로드웨이 42번가〉가 국내 초연 20주년을 기념해 다시 돌아왔다. 30여 명의 앙상블 배우들의 탭댄스와 초대형 이동식 스테이지에서의 싱크로나이즈드 댄스 등 새로운 버전이 국내에서 공연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무대를 선보인다. **일시** ~8월 28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문의 1544-1555

연극 〈트루웨스트 리턴즈〉



방랑 생활을 즐기는 형 '리'와 성공한 시나리오 작가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동생 '오스틴'의 갈등을 그렸다.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진 두 형제의 대립을 통해 현대 물질만능주의와 가족의 붕괴 등을 다룬다. 배우 오만석이 연출과 연기를 동시에 맡았다. **일시** ~8월 28일까지 **장소** 대학로 예그린씨어터 문의 02-764-8760

콘서트 〈The Great Concert_이선희〉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전할 이선희의 라이브 콘서트. 최근 SBS 〈일요일이 좋다-판타스틱 듀오〉에서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파격적인 편곡과 감쪽 랩 무대를 펼쳐 보이며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던 그가 이번 콘서트에서도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9월 2~4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1544-1555



낭만과 우아함의 극치,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한 여인의 운명적 사랑을 아름답고도 비극적으로 표현한 낭만 발레의 명작 〈지젤〉이 유니버설발레단의 무대로 돌아온다. 섬세한 감정과 넘칠 듯한 열정이 조화된 공연은 울여름 또 다른 낭만을 선사한다.

낭만 발레의 정수로 꼽히는 〈지젤〉은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비평가였던 테오필 고티에가 '월리'에 관한 작품을 읽고 영감을 받아 쓰게 된 작품이며, 쥘 페로와 장 코라이의 안무 그리고 아돌프 아당의 음악으로 1841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세계 초연된 이후 1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발레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숭고한 영혼을 지닌 '지젤'의 영원불멸한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지젤〉은 1막에서 순박하고 명랑한 시골 소녀가 사랑의 배신에 몸부림치며 광란의 여인이 되는 '지젤'의 모습이 그려지고, 2막에서는 죽음을 뛰어넘은 애뜻하고 숭고한 그녀의 사랑을 아름답지만 더욱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지젤〉은 여주인공 지젤의 극적인 캐릭터 변화, 푸른 달빛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월리들의 군무, 전형적인 비극 발레로서 주인공의 애절한 드라마가 관객을 매료시킨다. '몸으로 쓰는 낭만 동화'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은 발레 공연으로는 드물게 전회 매진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작품이기도 하다.

일시 8월 12~14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02-2230-6601

책 〈다시, 책은 도끼다〉



〈다시, 책은 도끼다〉는 지난해 초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총 8회에 걸쳐 이루어진 강독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시, 소설, 에세이는 물론이고 예술과 역사를 다룬 인문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의 책들을 박웅현만의 창의적인 관점과 시선에서 쉽고, 흥미롭게 풀어냈다. **지은이** 박웅현 **출판사** 북하우스

전시 〈이중섭, 백년의 신화〉



이중섭의 탄생 100년, 작고 60년을 기념해 국립미술관 최초로 이중섭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총 60개 소장처로부터 200여 점의 작품, 100여 점의 자료를 대여했다. 〈황소〉, 〈길 떠나는 가족〉 등 유화 60여 점 외에 드로잉, 은지화, 자료들을 총망라했다. **일시** ~10월 3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문의 02-724-6326

전시 〈프리다 칼로&디에고 리베라〉



멕시코를 대표하는 거장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 두 작가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 단일 미술관으로서 가장 많은 프리다와 디에고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멕시코 돌로레스 올메도 미술관의 작품 60여 점이 한국을 찾았다. **일시** ~8월 28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문의 02-580-1300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클렌징 라인

공중비누
홍삼 성분을 원료로 정성스레 숙성시켜 피부 영양을 유지해 주는 고급 클렌징 비누
100g×2 | 42,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 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은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대

에센셜 라인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충실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알뜰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지산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 105,000원대

스페셜 라인

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울리고 피부를 갱신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피니셔
80ml | 90,000원대

소선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에소침크림&패치
입가 팔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영의본초염플
명인진[™] 성분이 피부 본연의 방어력을 강화해주는 고농축 염플
7ml×5 | 20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피부 자극 없이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주는 깨끗하고 환한 인색을 선사하는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스크럽젤
백상 파우더가 포함된 젤 포몰라가 맑고 매끈한 피부를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스크럽 젤
100ml | 55,000원대

자정수
피부를 촉촉하고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미백 효능을 끌어올려주는 젤 타입 미백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수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주는 인색을 선사해주는 미백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집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우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트리트먼트
쿨링 자막 어플리케이터와 매끄러운 텍스처가 눈가를 환하게 밝혀주는 미백 아이트리트먼트
15ml |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해줄 뿐 아니라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미백 스크림
40ml | 75,000원대

여민에센스
피부 밀도를 조밀하게 가꿔주는 초기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130,000원대

여민마스크
젤레 열매 발효 성분이 피부를 단단히 여며주는 안티에이징 마스크
5매 | 40,000원대

자음생/자여진 라인

자여진에센스
주름을 밀어내고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인삼 캡슐 타입 에센스
35ml | 150,000원대

자음생진분유
인삼 총저유가 빠르게 흡수되어 극심한 피부 건조를 해소하는 고농축 에센스 오일
20ml | 12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인삼 기능성 성분이 도량하고 힘있는 눈매로 가꾸어주는 아이크림
25ml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인삼 결정체가 노화의 징후를 다스리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30,000원대

수율 라인

수율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평온함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수율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꿔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수율선펴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선펴루이드
50ml | 55,000원대

수율선펴크림
(SPF 50+ / PA+++)
바르는 즉시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수분 선펴크림
50ml | 55,000원대

바디 & 헤어

동백윤요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에센셜밤
홍황의 고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
15g | 40,000원대

연성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꿔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 8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수
적층 성분이 즉각 흡수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층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일전
125ml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적층의 생명력과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 방어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적층과 송이의 생명력으로 한결 깊은 젊음의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50,000원대

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삼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리서치 토달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다함설 라인

설안팩
백옥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팩
80ml | 85,000원대

어윤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옴션 라인

옴션수딩팩
목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옴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청운수딩팩
즉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하는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청매실 성분 함유 수딩 팩
80ml | 42,000원대

에올마사지크림
자신 피부에 영양과 활력을 재공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는 마사지 크림
180ml | 75,000원대

MEN

리프레싱클렌징폼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밀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
150ml | 30,000원대

분운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분운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분운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치 오일 성분의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릴렉싱UV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쿠션

- 11호 페일 핑크
- 13호 라이트 핑크
- 17호 화이트 베이지
- 21호 미디엄 핑크
- 21호 미디엄 베이지
- 23호 미디엄 베이지
- 25호 딥 베이지
- 25호 딥 베이지
- 33호 다크 베이지

퍼펙팅쿠션
(SPF 50+ / PA+++)
탄탄한 커버력으로 잡티 없이 윤기를 선사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15g×2 | 60,000원대 (리필 25,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묵련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화사한 윤기를 더해주는 안티에이징 쿠션
15g×2 |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 1호 화이트 톤
- 2호 미디엄 톤
- 3호 라이트 그린

CC

- 1호 핑크 베이지
- 2호 미디엄 베이지
- 3호 살구 베이지

메이크업밸런서
유·수분, 피부 힘·톤·결을 밸런스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0,000원대

CC유액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채담 메이크업

- 1호 핑크 베이지
- 2호 미디엄 베이지
- 3호 살구 베이지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
(SPF 25 / PA++)
김새만듯 부드럽게 도포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채담 스무딩팩트
(SPF 25 / PA++)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팩트
10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자정 메이크업

- 1호 화사한 색
- 2호 자연스러운 색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밝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BB
30ml |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화이트닝 팩트
9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에서 메이크업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에서 스킨케어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담담함 없이 커버해 주는 트윈케이크
11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파우더
성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꿔주는 파우더
20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진설 메이크업

진설 윤팩트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 90,000원대

진설 윤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30ml | 90,000원대

진설 윤팩트
영양 파우더가 화사함과 스킨케어 바운딩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팩트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블루미네이팅

- 21호 미디엄 핑크
- 23호 미디엄 베이지
- 23호 미디엄 핑크/베이지
- 23호 미디엄 베이지/베이지

블루미네이팅파운데이션
(SPF 35 / PA++)
피부를 탄력 있게 케어하는 크림 파운데이션
30g | 80,000원대

블루미네이팅 팩트
(SPF 32 / PA+++)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파우더 팩트
10g | 65,000원대 (리필 48,000원대)

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핑크색과 윤기를 선사하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 60,000원대

립

- 1호 에프리카로 세럼
- 2호 블러범 세럼
- 3호 플라워 핑크
- 4호 로즈 레드
- 5호 블러범 코랄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호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꿔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수유크림(4명)

수분 순환을 돕는 자작나무 수액으로 마르지 않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수분 진정 크림입니다. 상쾌하고 신뜻한 사용감으로 무더위에 지친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어줍니다.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1박 숙박권(2명)

JW메리어트에서 편안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1박 무료 숙박권(2인 기준을 2명께 드립니다. (숙박권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6년 8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수유크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1박 숙박권
- 당첨자 발표 9/10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6년 5/6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4명)

- 손봉기 경남 창원시 자귀로
- 심은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 정향숙 충남 예산군 예산읍
- 추혜순 경기 안산시 단원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1박 숙박권(2명)

- 김보원 강원 원주시 만대로
- 이현규 경기 과천시 별양로

2016년 5/6월호 당첨자 선물은 7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雪花秀

Sulwhasoo



얼굴 가득 화사함을 입는 순간 피부는 빛보다 환하게 피어난다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보면 볼수록 빛나는 피부를 원한다면, 피부 본연의 맑은 안색부터 살려야 합니다. 피부의 숨겨진 빛까지 찾아내 맑고 화사한 피부빛을 완성하는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목련 추출물과 진주모 복합레스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밝은 빛을 끌어내 한결같이 화사한 피부로 완성합니다. 이제, 끝없이 퍼지는 화사함으로 온종일 빛보다 환한 피부를 지니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6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 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디큐브백화점 거제점 055-680-014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품격 있는 삶(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피부 섬기기(1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동서고금이 만나다(1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新 공간을 보다(2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건너다(2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2. 누리다

설화인(3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어우러지다(4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풍경(5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보감(5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아름다운 기행(6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수를 말하다(6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한국의 멋(8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애장(8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읽다(8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집 안 단장(8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몸 단장(9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 히스토리(9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설화수 수유크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1박 숙박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신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강원도, 충청도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러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8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신라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신라 김포 면세점	02-2661-3216
제주 신라 면세점	064-710-7324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신세계 김해공항 면세점	051-970-2743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한화 면세점	02-2136-2779
동화 면세점	02-399-3123
삼익 면세점	032-743-0543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제주 국제공항 면세점	043-213-3500
대전 신우 면세점	대전 유성구 온천로 33
수원 양곡리 면세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청주 종원 면세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 114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